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물관학 석사학위 논문

2011년 2월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전 태 일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 전공

유 민 영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박물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 전공

유 민 영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 전공

유 민 영

상기자의 박물관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권 영 진 印

심 사 위 원 백 령 印

심 사 위 원 전 태 일 印

2011 년 2 월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국문초록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3절 연구의 제한점	5
제2장. 지역사회 속 공립 미술관의 역할과 전시활동	7
제1절 지역사회와 공립 미술관	7
제2절 지역 공립 미술관 전시활동	18
제3절 제주지역 문화기관의 특징	23
제3장. 국내 지역 공립 미술관 현황분석	26
제1절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현황	27
제2절 타 지역 공립미술관 현황	34
제3절 소결	44
제4장. 공립 미술관의 전시활동 사례 및 분석	45
제1절 지역별 공립 미술관의 전시활동 현황	45
제2절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시	47

제3절 청년작가 발굴을 위한 전시	56
제4절 대형국제전(비엔날레)	62
제5절 소장 작품 전시	72
제6절 소결	76
제5장.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 방향 제언 ..	78
제1절 제주지역 공립 미술관 전시활동 현황분석	78
제2절 제주지역 공립 미술관 기획전시 방향 제언	79
1. 제주의 지역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 기본전시 기획 및 설정	79
2. 제주문화를 이끌 작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시기획	82
3. 타 지역과 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85
4. 세계화시대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국제전시 기획	86
제6장. 결론	88
참고문헌	90
Abstract	95

표 목 차

< 표1 > 연구 흐름도	4
< 표2 > 국가별 뮤지엄(Museum)의 정의	7
< 표3 > 소장품에 의한 뮤지엄(Museum) 분류체계	9
< 표4 > 시대에 따른 미술관의 역할 변화	14
< 표5 > 전국 미술관 현황 총괄표	15
< 표6 > 미술관의 내외 기능	17
< 표7 > 제주지역 문화기반시설	24
< 표8 > 전국 공립미술관 운영현황	26
< 표9 > 제주특별자치도 공립미술관 현황	27
< 표10 > 제주현대미술관의 운영개념	30
< 표11 > 제주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 선정 공립미술관 현황	34
< 표12 > 광주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현황	37
< 표13 > 타 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현황	45
< 표14 > 《SeMA 전》전시개요	57
< 표15 > 전시주제 및 참여 작가	59
< 표16 > 서울 국제 미디어비엔날레 개요	63
< 표17 > 광주비엔날레 개요	66
< 표18 > 2010년 제8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소와 이미지배치	68
< 표19 > 부산비엔날레 개요	69
< 표20 > 2010, 부산비엔날레 전시장소 및 전시내용	71
< 표21 >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개최 현황	78

그림 목차

〈그림1〉 미술관 역할간의 유기적 연계성	13
〈그림2〉 전시 구성요소 및 작용	21
〈그림3〉 지역문화 시설의 문화적 지향점	25
〈그림4〉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계획 및 개념	28
〈그림5〉 제주도립미술관	29
〈그림6〉 제주현대미술관	31
〈그림7〉 서귀포 시립 이중섭미술관	32
〈그림8〉 서귀포 시립 기당미술관	33
〈그림9〉 서울시립미술관	36
〈그림10〉 광주시립미술관	38
〈그림11〉 부산시립미술관	39
〈그림12〉 대전시립미술관	40
〈그림13〉 경남도립미술관	41
〈그림14〉 전북도립미술관	42
〈그림15〉 경기도미술관	43
〈그림16〉 《2005 청계천을 거닐다 전》전시관	49
〈그림17〉 《배를 타고 가다가, 한강르네상스 서울 전》전시관	49
〈그림18〉 《City-net Asia 전》전시관	50
〈그림19〉 《City-net Asia 전》전시관	50
〈그림20〉 2007《경기 1번 국도 전》전시관	55
〈그림21〉 2006《언니가 돌아왔다 전》전시관	55
〈그림22〉 4.3사건 주제의 작품사례 ① - 젓먹이, 강요배 작, 2007	82
〈그림23〉 4.3사건 주제의 작품사례 ② - 시원, 강요배 작, 1989	82

국문초록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

유 민 영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지도교수 전 태 일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공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까지 총 30,755 백만 원을 투입해 13개소의 미술관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도 3,758백만 원을 투입하여 7개소(계속 3개소, 신규 4개소)의 미술관 건립을 지원할 예정이고, 향후 미술 인프라 부족지역에 지속적인 미술관 건립 및 지원과 함께 공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와 미술에 대한 감상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미술문화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추진 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추어 제주지역은 2007년 제주 현대미술관 개관, 2009년 제주도립미술관 개관을 통해 총4개의 공립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지역 공립 미술관 전시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현재 제주도 소재의 공립미술관의 전시활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획전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국 광역도시 및 도 이상 규모 행정구역의 대표적인 공립(지역자치)미술관을 선정하여 미술관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미술관에서 시행되는 기획전시사례를 미술관별로 비교적 공통적으로 개최되는 4가지 유형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장점 및 취약점을 분석하여 제주 지역 공립미술관들의 좀 더 계획적인 기획전시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선정된 공립 미술관 및 기획전시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서울시립미술관과 서귀포기당미술관을 제외한 나머지 미술관들은 1992년부터 2009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취지 및 목표 또한 지역민의 문화향유, 문화교육을 위한 종합문화공간 제공, 지역미술의 정립,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 등으로 공통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미술관들의 기획전시는 연간 약15회 정도의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립 미술관인 만큼 전시의 대부분을 지역의 특징과 지역작가들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다.

사례로 선정된 미술관들의 전시를 미술관 별로 하나씩 때어놓고 보았을 때에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전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해보이나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묶어 살펴 보았을 때 미술관별로 뚜렷한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미술관이 비슷한 형태와 구성으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려된다. 전시 사례의 특징과 장 . 단점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공립 미술관 기획전시의 방향을 4가지의 유형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제주의 사회, 문화, 역사의 계승과 재해석, 현재 제주의 이슈를 예술과 접목시킨 전시를 기획, 진행함으로써 미술관 이미지를 구축하고 제주의 문화향유 및 전시 활동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둘째, 제주지역의 문화를 이끌 차세대 작가 발굴 프로젝트 형식의 전시 및 중견, 원로 작가들 전시 활동 지원을 위한 초대전 및 프로젝트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전시된 작가의 작품은 미술관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주지역 미술의 발전과 작가지원 방안의 다양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타 지역과 문화 공유를 위한 교류전시를 통해 지역 공립미술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넷째, 세계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대형전시 개최이다.

위와 같은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방향에 대한 제언은 제주지역 공립 미술관 기획전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공립미술관이 다양한 전시활동을 통해 제주지역의 미술의 발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 한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는 변화하는 21세기의 중심에 있다. 그 변화 속에서 정치, 경제활동이 수도권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문화 또한 수도권 과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 지방 단체 행정은 정치,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발전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변화와 노력의 첫 번째 단계로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단체 행정에서는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설립하고 국제 엑스포 및 박람회 등을 앞 다투어 개최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지식경제부 국가균형 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문화·관광 부문에 있어서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장려하고자 1981년부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1999년부터 문화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2003년부터는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미술관 건립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와 미술에 대한 감상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미술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999년부터 공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까지 총 30,755백만 원을 투입해 13개소의 미술관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도 3,758백만 원을 투입하여 7개소(계속 3개소, 신규 4개소)의 미술관 건립을 지원할 예정이고, 향후 미술 인프라 부족 지역에 지속적인 미술관 건립 지원과 함께 공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¹⁾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국가정책과, 타 지방 자치단체들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추어 제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발전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 지식경제부, 2007. 「국가균형 발전 계획에 관한 연차 보고서」, 2007, p. 236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나 고유의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삶 자체를 통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연간 543만 명에 이른다. 그 중 외국인 관광객은 50만 명이고 관광수입은 2조 2천억에 달한다. 그 후 2008년 580만 명, 2009년 650만 명²⁾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제주도는 위의 통계 자료로 알 수 있듯이 국내외 및 아시아권 일대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더 큰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을 활발히 육성, 발전시키고 있다. 2009년 9월 한경면 저지리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내 제주현대미술관을 개관하였고, 2009년 9월 제주도립미술관을 개관하였다. 또한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이 2011년 12월에 완공예정이다. 이렇듯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 예술 산업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루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관광코스인 제주올레 6코스 주변에 위치하는 서귀포시 직영 미술관인 서귀포시립 기당미술관, 서귀포시립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3곳을 찾은 방문객은 2009년 7월, 4만 3441명에서 2010년 7월 6만387명으로 39% 급증했다.³⁾ 이는 앞으로 잠재적 관람객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립 미술관은 외형적인 발전에만 치중하여 뚜렷한 목적과 특징 없이 타 지역 전시관과의 유사한 전시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미술관으로서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전시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계획적인 기획전시 활동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지역 공립 미술관의 전시 활동은 지역주민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문화의 이해를 돕고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관광객들에게는 인터넷, 서적 등 간접 매체로 접하는 문화보다는 전시 관람의 직접적 체험을 통해 지역의 삶과 문화를 느끼는 것이 더욱 큰 감동이

2)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관광교통국 관광정책과 2010년 관광현황 자료

3) 제주일보 2010년 7월 8일 기사 발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계획적이고 체계화 된 전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지역 특징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람객을 범위로 선정하여 현재 타 지역 공립미술관의 기획전시 활동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색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기획전시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논문, 세미나 자료(학술지), 미술관 인터넷 사이트, 관련서적 등을 참고 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논문을 계획하게 된 배경과 목적 및 연구 내용, 방법, 연구의 제한점을 정리 하였다.

본론의 첫 번째 장인 2장 중 1절과 2절은 지역사회에서의 미술관의 역할 및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미술관의 전반적인 개념과 역할을 알아보고, 미술관의 기본적 역할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인 기획전시에 대하여 알아본다. 3절에서는 본 논문의 중심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립미술관의 특징을 살펴보고 타 지역과의 차이점을 고찰한다.

3장 1절과 2절에서 제주지역과 타 지역 공립미술관의 현황을 알아보고 3절에서는 소결을 통해 각 미술관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제주지역 미술관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전국의 공립미술관의 기획전시 활동 사례를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미술관이 어떠한 형태로 전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전시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제주지역을 제외한 지역 미술관 전시활동 현황을 총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2절은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획된 전시들을 살펴보았다. 제3절은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될 청년작가 발굴을 위한 전시 유형을 알아보고, 제4절 지역문화 및 국가 경쟁력을 키워 줄 국제대형 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5절에서는 지역공립미술관별 소장 작품을 중심으로 기획된 전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6절에서는 각 지역의 공립미술관의 전시활동 사례분석을 통해 보여 지는 공통점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제5장의 제1절에서는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제주지역 공립 미술관의 전시현황을 총괄적으로 알아보고, 제2절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전시활동 사례분석을 토대로 제주지역 공립미술관의 전시활동의 방향을 총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향은 각 미술관 별로 제주의 문화와 환경을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테마

를 미술관 각각의 성격에 맞춰 전시를 계획하여 미술관별로 차별성을 두어 서로간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두 번째 방향은 미칠 차세대 지역작가를 발굴 및 지역의 중견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발판지역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제주도 지리적 특성상 외부 지역과는 고립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 타 지역과의 교류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타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타 지역에는 제주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향은 제주도는 타 지역과 차별화 된 특별자치도 이자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국제 자유도시이다. 이러한 행정구역적인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제 비엔날레 및 해외와의 교류전을 통해 국제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표1> 연구흐름도



- 청년작가 발굴을 위한 전시 사례
- 지역미술 정립을 위한 전시 사례
- 국제교류전시 사례



제5장

-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현황분석
- 제주지역 공립미술관을 위한 전시활동 기획제언
 - 제주의 특징을 중심으로 기획한 전시활동
 - 제주의 문화를 이끄는 차세대 청년작가 발굴
 - 타 지역과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
 -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전시



제6장

- 결론

제3절 연구의 제한점

본 논문은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에 있어서 전국의 공립미술관 중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광역도시 및 도 이상 단위의 지역을 대표하는 7개의 미술관을 선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미술관이라는 공통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전시의 규모와 다양한 기획전시를 활발히 진행하는 대형 공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선정의 타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유형별 전시사례 조사는 2010년 현재까지 선정된 7개의 미술관

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전시들을 4가지 유형으로 국한시켜 그 특징에 맞는 전시들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결론을 일반화 하는 점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전시사례는 각 미술관 개관에서 2010년 현재 까지 진행된 전시들이 다루어짐에 있어서 전시사례 조사 연구는 직접방문 및 전시 도록, 각 미술관 홈페이지, 전시에 따른 비평문 및 연구 서적을 통한 분석임을 밝혀둔다. 대부분의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 전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전시 관람이 불가능 하였기에 현장 상황의 분석은 다소 부족하다.

본 논문의 결과는 제주지역 공립미술관들 전시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한 전시기획의 방향성 제공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 이 연구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기획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장. 지역사회 속 공립 미술관의 역할과 전시활동

제1절 지역사회와 공립미술관⁴⁾

1. 공립미술관의 개념

한국어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번역되는 뮤지엄(Museum)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파생어이다. 뮤지엄(Museum)의 어원은 그리스 예술의 여신 무사이의 신전인 무세이온(Mouseion)으로 이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문학, 예술, 철학의 여신(Muse)에게 바치는 신전의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며, 진귀한 물품, 공예품, 미술품을 보관하던 성소는 현대미술관의 기능 중 하나인 ‘유물 및 예술품을 보관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근원이다. 즉, 뮤지엄(Museum)은 18세기 이전까지는 소장품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18세기 이후로는 수집품을 보관하고 . 전시하는 건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전반적인 의미에서의 박물관을 지칭 할 때는 ‘뮤지엄(Museum)’을 사용하고 그 중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을 지칭 할 때는 ‘미술관’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뮤지엄(Museum)에 대한 정의는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표2> 국가별 뮤지엄(Museum)의 정의

기 관 명	정 의 내 용
국제박물관협회 (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Museum은 사회와 그 발전에 공헌하고 연구, 교육, 즐거움의 목적으로 인간과 그 환경에 관계하는 물질자료를 취득, 보존, 연구, 전달, 전시하는 공공의 비영리 기관이라 하였다.
영국박물관협회 (The Museums Association)	박물관은 대중의 이익을 위해 물적 증거와 관련 정보를 수집 . 문서화 . 보존 . 전시 . 해석(교육)하는 기관이다.

4) 공립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3조 박물관, 미술관의 구분에 의하면 박물관은 그 설립 .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하며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정의 된다.

<p>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관(UNESCO)</p>	<p>미술관(박물관)을 각종 방법에 의해 문화가치를 갖는 한 무리의 물품과 표본을 유지, 연구 및 확충하고, 특히 이것들을 대중의 오락과 교육을 위해 관리되는 항구시설, 즉 미술적, 과학적 또는 공예적 수집, 식물원, 수족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p>
<p>미국박물관협회 (The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p>	<p>일시적인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적이며 항구적으로 존재하도록 설립된 기관이며, 대중에게 개방되어 대중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며, 대중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예술적, 과학적, 역사적, 기술적인 유물과 표본물을 보존, 보전, 연구, 해서, 수집, 전시하는 기관이다.</p>

위의 기관에서 정의한 Museum의 의미를 살펴보면 Museum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공공적인 기관으로 현재와 과거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미래에 전승하고, 사회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인류에 의해 생산된 유형의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시,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미술관은 예술 작품을 소장하는 전문Museum으로서 Museum의 종류를 구분 짓는 자료의 종류에 의거한 분류를 살펴보면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의 양 분야에 걸친 자료를 모두 소장하여 전시하는 종합Museum, 인간생활 및 문화관련 자료만을 전시하는 인문계열Museum, 자연계를 구성하는 사물의 원리와 역사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는 자연계열Museum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표와 표를 살펴보면 미술관은 인문계열 전문Museum의 한 종류임을 알 수 있다.

<표3> 소장품에 의한 뮤지엄(Museum) 분류체계

종 류	분 류	내 용	명 칭
종합 Museum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의 양 분야에 걸친 자료를 총합적으로 취급하는 박물관	
전 문 Museum	인 문 계열	미술 Museum	예술자료 중심 고미술박물관(미술관), 근대박물관(미술관), 공예미술박물관, 민예관, 미술회화박물관, 조각미술박물관, 문화역사미술박물관, 연극박물관
		역사 Museum	인문 과학적인 자료를 중심 민속박물관, 인류학박물관, 사회학, 풍속사 박물관, 건축사박물관(야외전시), 종교사
	자연계 Museum	자연계를 구성하는 사물 혹은 그 변천사에 관련된 자료 또는 과학 기술의 기본 원리, 그 역사에 관련된 자료나 과학기술에 관련된 최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취급하는 박물관 과학기술박물관, 우주, 항공과학관, 전기, 원자력, 기계과학관, 선박, 교통, 해양과학관 동물박물관, 식물박물관, 이공학박물관, 산업박물관, 고생물박물관, 지질박물관, 수족관, 자연사박물관	
	기타	더욱 전문적인 것과 복합된 것 야외박물관, 사적, 명승문화재 보호원, 방국 박람회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의미를 같이하거나 또는 박물관의 한 종류로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의 내용에서 언급된 나라 및 기관과는 다르게 박물관과 미술관을 별개의 기관으로 인지하고 명명하고 있다. 미술관, 박물관 구분은 법조항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미술관과 박물관의 정의를 구분지어 놓은 법조항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1991년에 지정되어 매해 일부개정 과정을 거친 후 2007년 전면 개정되었고, 2010년 일부 개정되었다.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박물관”이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 · 고고(考古) · 인류 · 민속 · 예술 · 동물 · 식물 · 광물 · 과학 · 기술 ·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항. “미술관”이란 문화 · 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의 ‘박물관 · 미술관 법’ 상 미술관은 박물관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로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관을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국립미술관,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공립미술관은 지방자치체에서 성립 · 운영하는 비영리목적 기관으로 지역민에게 전시와 교육을 제공하고, 외부인에게는 지역의 문화 · 예술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공립미술관은 지역미술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것이다. 공립미술관이 공공기관으로서 갖는 공공성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적 이해를 넘어 형성되는 국가 혹은 사회공유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과학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공립미술관은 미술관 역할의 특징에 따라 예술 작품을 전시함으로 대중을 유도하는 기관으로 지역미술문화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국립미술관의 성립

우리나라 박물관의 시초이자 미술관의 시초는 귀중품을 보관하던 신라시대의 귀비고(貴妃庫), 천존고(天尊庫), 고려시대의 장화전(長和殿), 조선시대의 상의원(商衣院) 등을 들 수 있다. 대중예의 향유와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수집, 보존을 기능으로 삼고 있는 근·현대 미술관의 모습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관은 1938년 창경궁 내에 있던 이왕가 박물관에서 소장되어 있던 삼국시대 이래의 조각, 공예품, 도자기, 회화, 조선출토 중국 도자기들 등 11,000점 내외의 미술품을 미술관으로 옮겨 발족시킨 이왕가 미술관이다. 이왕가 미술관은 8개의 전시실, 수장고, 강당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해 6월 5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이왕가 미술관은 전시활동 뿐만 아니라 도록도 간행하였다. 이왕가 미술관에 이어 1939년 봄 조선총독부 미술관이 세워지게 되었다. 예전의 공진회 미술관을 대체하기 위해 세워진 조선 총독부 미술관은 일반인들도 관람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⁵⁾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 우리나라 미술관은 시대적 혼란 속에 새로운 이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왕가 미술관은 미군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1946년 3월 덕수궁 미술관으로 개관하였다.

이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민들의 민족에 대한 자각이 심화됨으로 인해 미술관 문화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된다. 1968년 문화공보부가 생기면서 박물관 업무와 국전개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문화공보부가 좀 더 효율적인 문화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입법에 나서게 되면서 1969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발족되었다. 서울의 경복궁 전시관 건물에 행정직 관장과 소수의 행정직 직원이 상설진열의 소장품 하나 없는 국립미술관 간판을 내걸음으로써, 그간 국가적 현안이던 것을 기구상으로 일단 해결하였다.⁶⁾ 1969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직제가 공포되었으나 미술품의 수집, 보존, 미학적인 연구 등의 본래 미술관의 역할은 배제되었고 국전의 개최만이 유일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기능이였다. 이렇게 미술관의 한정된 기능에 의해 미술관의 직제 또한 관리과와 전시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일제 강점기의 이왕가 미술관과 조선총독부 미술관의 기능이 전시에 한정되었던 것의 영향 받았기 때문이다.

5) 최 열, 한국 근대미술의 역사, p.425

6) 서울특별시, 서울 육백 년사 제6권, p.1710

국립현대미술관의 기능이 전시에 한정되게 된 연유에는 1968년 덕수궁 미술관이 국립 중앙박물관과 통합되어짐으로 인하여 덕수궁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던 미술품들 또한 같이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술관 정책을 통해 그 동안 전시위주의 기능만을 하던 국립 현대미술관이 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이르러 작가나 작가의 유족들 혹은 소장 가들에 의해 소장품을 기증 받게 되면서 컬렉션의 기능을 형성하게 되었다.⁷⁾

1981년 건국 이래 최초의 문화헌법이 제정되면서 문화 발전 및 국민 문화의식 부흥을 꾀하면서 투자가 미비하였던 문화 예술에 투자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미술관의 변화에 따라 1984년 박물관 법을 제정하였다. 새로 제정된 박물관법에 따라 미술관의 직제 개정, 미술관의 신 개척, 전문직 도입제도 등이 실시되었다. 1990년 1월 문화부가 신설되고 문화발전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리고 1991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미술관 문화에 큰 변화의 기점을 마련하였다.

공립미술관 공공성의 발전은 근대 진보주의나 계몽주의라는 역사적 당론과 상호 연관된 다양한 요소들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의 발달과 지방 정부와 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연속적인 발달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산업화 진행 과정은 근본적으로 일반 대중의 삶과 사고방식을 변화시켰다.⁸⁾ 미술관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90년대 이후 정보통신의 발달,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사회발전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정체성 및 지역사회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공립미술관 건립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삼고 있다.

3. 지역 공립 미술관의 역할

미술관의 일반적인 역할은 문화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발굴하고, 조사, 연구하여 얻어낸 결과들을 전시, 출판,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정리하면 총 4가지 역할로 「수집 . 보관」, 「전시 .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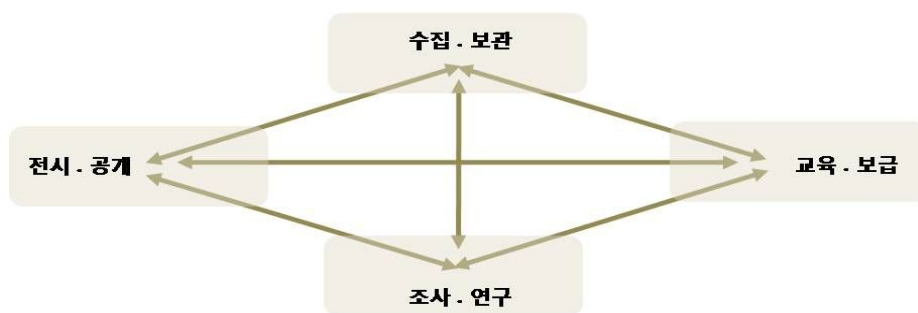
7) 차혜림, 한국 국립 미술관의 역사와 현황에 관한 연구 : 직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8) 홍혜정, 지역 시립미술관의 전시기획 전략 : 대구시립미술관건립계획에 있어 전시기획을 위한 제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조사 . 연구」, 「교육 . 보급」이라 정리 할 수 있다.

미술관이 미술관으로서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인 역할은 미술품의 「수집 . 보관」이라 볼 수 있다. 미술관에 미술품 및 미술 자료가 없고 대관 형태의 전시만을 한다면 실질적인 미술관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본질적인 기능에는 분류, 정리, 보존, 수득, 관리의 기능이 내재 되어있다. 두 번째 본질적인 기능은 「전시 . 연구」로 미술관은 수집 및 보관되는 미술자료를 대중의 관람에 기여하고 이후의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열려있는 미술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기능의 내실이 중요하다. 미술관의 기본적인 기능 「조사 . 연구」는 미술관의 본질적 기능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본기능인 「교육 . 보급」 활동을 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이로 미루어보면 「조사 . 연구」는 다른 세 가지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전시의 기본기능은 「교육 . 보급」이다. 이 기본 기능은 전시 . 공개와 관련이 깊고 대중의 미술자료 관람에 많은 기여를 하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하다. 위에서 설명한 미술관의 대표적인 4가지 역할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순환하게 되는데 우선, 미술자료 조사, 연구의 기원과 그 성과를 기본으로 미술자료의 수집, 보관 활동이 이루어진다. 수집, 보관된 자료는 대중에게 전시, 공개의 과정을 통해 관람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이 과정에서 교육과 보급 활동이 병행된다. 미술관의 4가지 기본적인 역할은 대략 위와 같은 순환과정을 거쳐, 미술관 활동의 맥을 형성한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미술관의 기본적인 역할들은 필수 불가분의 관계로 미술관 활동을 위해서는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으며, 4가지 기능이 균형을 이룰 때 미술관의 역할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술관을 접하는 현대인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제 및 학교의 격주5일 수업 등 여가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그 역할의 범위와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림1> 미술관 역할간의 유기적 연계성



미술관의 주요 기능은 위의 내용과 같이 전시, 보존, 연구, 교육이다. 미술관의 현대적 기능은 하나의 사회 속에서 획득하게 되는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이다. 미술관의 사회적 기능은 미술관이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대중을 위해 계몽하고 봉사하며, 결국 이것은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의 기초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현실을 통찰할 수 있는 장으로써의 역할, 현존하는 작가의 작품 활동을 장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며, 작가와 관람객의 소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의 미술관들은 미술관의 주요 기능 및 관람객 개발, 작가양성, 관람객 교육활동 등의 현대적 기능을 기본으로 수행하면서 각각의 고유 이미지를 만들고 새로운 관람객의 개발과 관람객의 문화적 부족함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4> 시대에 따른 미술관의 역할 변화

시 대	미술관의 역할
고대 그리스	아카데미한 역할, 문화 예술품 보관의 기능
로 마	개인 소유물의 보관
중 세	종교적 부속물, 종교적인 성물의 제작, 보관
르네상스	역사적 산실, 고대 유물 보관
17세기 후반	뮤지엄의 공공 시설화
프랑스 혁명 이후	사회교육 시설
20세기 이후	문화공간으로서의 미술관

공립미술관은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기관으로서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과 동시에 기회를 부여시킨다. 전시를 비롯한 교육과 체험학습의 기본이 형성되는 공간으로서 지역민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미술관의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시킨다.⁹⁾

미술관의 역할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타 활동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계속하여 변화한다.

9) 권수진, 대전시립미술관 운영 실태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2009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 초기 국립미술관 관장은 “뮤지엄(Museum)은 폭 넓은 대중에 봉사하고 뚜렷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져야 한다.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뮤지엄(Museum)은 단지 전문직 종사자와 여가를 즐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술자, 공장 노동자 심지어 세일즈맨의 요구 사항에도 부응하여야 한다면서 어떠한 뮤지엄(Museum)도 배움의 장이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발전할 수 없다.”¹⁰⁾라고 주장하였다. 오늘날에는 연구와 보관만을 위해 작품을 소장하는 과거적 미술관의 역할에서 정신적 소통을 위한 수단의 역할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가고 있다. 즉, 작품의 수집과 보관이라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작품과 관람객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역할로 그 기능이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관들은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다. 문화의 고른 발전을 이끌어 내고 문화적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적 행위의 기반인 문화예술 공간인 미술관 확충이 각 지역사회마다 균형을 이루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표5> 전국 미술관 현황 총괄표¹¹⁾

지역 \ 구분	공립	사립	대학	소계
서울	1	27	2	30
부산	1	1	1	3
대구	0	0	0	0
인천	1	2	0	6
광주	1	4	1	4
대전	2	2	0	0
울산	0	0	0	0
경기	5	20	1	26
강원	3	3	0	6
충북	2	4	0	6

10) Neil Kotler·Philip kotler, 한중훈·이혜진 옮김, 「박물관 미술관학-뮤지엄 경영과 전략」, 서울: 博英社, 2005, p.16

충 남	0	5	0	5
전 북	2	1	0	3
전 남	2	10	0	12
경 북	1	4	0	5
경 남	3	2	0	5
제 주	4	10	0	14

(2008년 12월 31일 시점)

지역사회라 함은 어떠한 공통점 또는 상호보완적 특성을 가졌다거나 혹은 광범위한 지역 활동의 흐름으로 묶인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범위를 말한다.¹²⁾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활동이 지역사회의 특징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각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에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된 지역공립 미술관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외부로 향해 열려 있어야 하며 예술의 창작이나 수용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자연스런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 들 수 있고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적 위상을 생각하고 점검, 반성, 전망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진정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¹³⁾

현대인에게 문화는 더 이상 일부 지식인층만이 창의성을 기르고 향유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상생활에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예술문화가 수도권에 비해 제한되어있는 지역 사회의 미술관은 대외적으로 소속 지역사회의 문화적 긍지 및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문화적 자원, 경제수준, 복지향상 등 지역민의 욕구와 희망을 반영하여 문화교육과 문화생활 향유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적 예술 재능 유지와 육성, 예술작가들의 예술 활동지원 및 예술 교류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미술관은 단순히 전시 공간을 뛰어넘어 지역주민의 삶 속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

11) 문화관광부, 200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3

12) 이소진, 현대미술관의 공간 구성 특징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8

13) 최태만, 미술관 설립 및 활동의 역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 1990

한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커질수록 그 기능은 확대되어 간다. 단순히 전시공간이라는 근대적 기능을 탈피한 현대 미술관들의 기능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된다. 이 전에는 평가가 끝난 기존의 예술품들이 주요 대상이었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시도되는 실험적인 현대 예술품들을 작가와 예술품을 작가와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능동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한 것이다.¹⁴⁾ 이에 창의적인 기획전시의 기능은 다른 어떤 박물관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미술관은 고유한 미술관의 전통적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남으로써 미술관 개념자체의 위기를 야기 시키는 소장품이 없는 전시 중심의 미술관이다.¹⁵⁾ 소장품이 없는 미술관은 미술관의 주요기능인 수집, 분류, 복원 관리 등의 활동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미술관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미술관은 미술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 예술가, 관람객들과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종합적인 예술 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공공미술관은 공공성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상징의 결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자치 행정기관에서 미술관 건립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보여주는 문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지역의 특징 및 특수성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핵심 장소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미술관의 성격, 기능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표6> 미술관의 내외 기능¹⁶⁾

구분	수집	조사	전시	교육	공공	관리
보존	보존과학 활동	수집정책 및 기획	전시본존환경	보존과학교육		수장고환경보전방재관리
연구	조사발굴 학예연구지원	연구정책 연구평가	전시기획 전시자료개발	교육활동지원	미술품감정	연구환경관리 조직관리
전시보급	전시자원의 수요공급관계	전시관람자분석, 피드백	전시개발 전시평가 소장자료의 교환 및 대여	전시와 교육 활동의 연계	뮤지엄숍 상품개발 복제품 개발지원	보안관리

14) 윤민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운영방안 연구, 홍익대, 2009

15) 독일의 실험적인 미술관인 쿤스트할레와 프랑스 파리의 주드 폼프 등이 소장품이 없는 전시중심의 예이다.

특별활동	교육활동지원 소장품제공	전문가재교육	교육자료이 공유	교육정책수장 자료의 대여	이벤트기획	활동환경관리
공공봉사	소장자료제공	왜래연구지원	전시, 전시해석	전시홍보	관람자의 서비스평가 저진적모색 공공봉사의 질 유지	이용자유치
경영	수집예산 수집환경보전	연구성과의 사회화	전시섭외	정규교육섭외 사회교육섭외	관람자유치 수익성검토	수익사업

(출처 : 문화관광부(1997), 21세기 박물관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현대사회에서 공립미술관은 예술작품을 보여주는 활동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가치를 창출해 내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범위와 영역은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

제2절 지역 공립 미술관 전시활동

사전에 명시된 ‘전시’(展示, Exhibition)의 의미는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임.’ 즉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다. 그러나 미술관(박물관)에서 의미하는 전시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아래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적은 관람하는 이에게 의도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미술관 전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사전적 정의와 같이 간단히 설명할 수 없다.

‘전시’는 한 전시장 안에 통일된 단위를 이루는 전시물과 해석 매체를 모아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시물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언급하기 위해 사용한다. 전시는 다른 해석매체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지닌다.

16)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2000, p.89

- 전시는 한 번에 많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에 비례해 효율성이 높다.
- 전시는 실제 시물을 제시한다.
- 관람객은 자신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히 전시를 활용할 수 있다.¹⁷⁾

미술관에서의 전시(展示, exhibition)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공공 미술관이 탄생하기 이전에도 종교적 장소, 왕이나 귀족 등과 같은 유력한 개인컬렉션을 중심으로 미술품의 수집과 보존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오래 동안 미술품을 일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진열(display)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이때의 진열 행위는 단순히 그림들을 벽에 걸거나 일정 공간에 입체작품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정도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오늘날처럼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따라서 이처럼 개인 수집가 입장에서의 미술품의 단순한 수집과 진열을 현대적 의미의 본격적인 전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¹⁸⁾ 오늘날 현대 미술관의 특수성은 여러 소장품 중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특히 당대 미술을 다루는 현대 미술관의 경우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소장품을 단순 나열하는 과거의 진열식의 전시보다 기획전의 의미가 강화되었으며, 기획전시는 동시대 창작인들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한다. 소장품이 아닌 대여 작품으로 기획전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획전시를 통해 미술관은 동시대 창작 현장에 개입하여 현대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활성화시킨다. 선 수립, 후 전시가 아닌 선 전시, 후 소장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전시기능을 수행하며, 과거의 역사를 서술하는 전시보다는 현대 미술을 전시함으로써 역사를 만들어 가는 전시를 지향하는 현대 미술관들은 지역 창작인들과 주민들을 연계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미술관 전시는 일반 관람객에게 사회적 존재의 의미를 확인시켜주고, 정확한 관람대상과 전시물의 종류, 전시목적에 어떠한 전시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및 기획, 집행, 피드백 등의 과정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D.B.하우웰은 다음과 같이 전시 업무 단계를 세부적으로 담은 체계를 작성하였다.¹⁹⁾

17) 이권호, 광주예술의 거리내(가칭)현대미술관 기본 계획 설계 : 미술관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2009, P4

18) 하계훈, '전시기획의 이론과 실제', 국립현대미술관 2007년 하계 초등교사 미술연수 자료집

19) 마이클 벨처 (신자은, 박윤옥 옮김), 박물관 전시의 기획과 디자인, P122~126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우선 특정 전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미술관(박물관) 설립 취지문 또는 커뮤니케이션 정책으로부터 필요성이 직접 대두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여러 통로를 통해 필요성이 인식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미술관(박물관)의 기본 취지와 성격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안서에 대한 1차적 검토 :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진정되려면 단순히 필요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전시의 내용과 추진방법이 명시된 제안서를 통해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타당성 조사 : 제안서 모든 측면에 대한 보다 심화된 검토과정이다. 따라서 전시의 취지와 목적 및 개요를 작성하여 타당성을 1차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 제안서의 모든 측면에 대한 보다 심화된 검토과정이다. 따라서 전시의 취지와 목적 및 개요를 작성하여 타당성을 1차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연구 : 큐레이터, 디자이너 등이 전시에 필요한 가자의 담당 분야를 연구한다.

전시의 구체화 : 전시 기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큐레이터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전시 개요를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기술하고 1차 출품작 리스트를 만든다.

보존 : 출품 예정 소장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준비 작업을 실시한다.

1차 전시 기획서 작성 : 1차 기획서는 전시의 취지와 목표가 자세히 기술된 문서이자 디자이너가 디자인 설계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전시 디자인 : 1차 기획서를 바탕으로 디자이너는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한다.

최종 승인 :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승인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시기획안의 마무리 : 디자인이 확정된 후 전시 제작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완성해야 할 업무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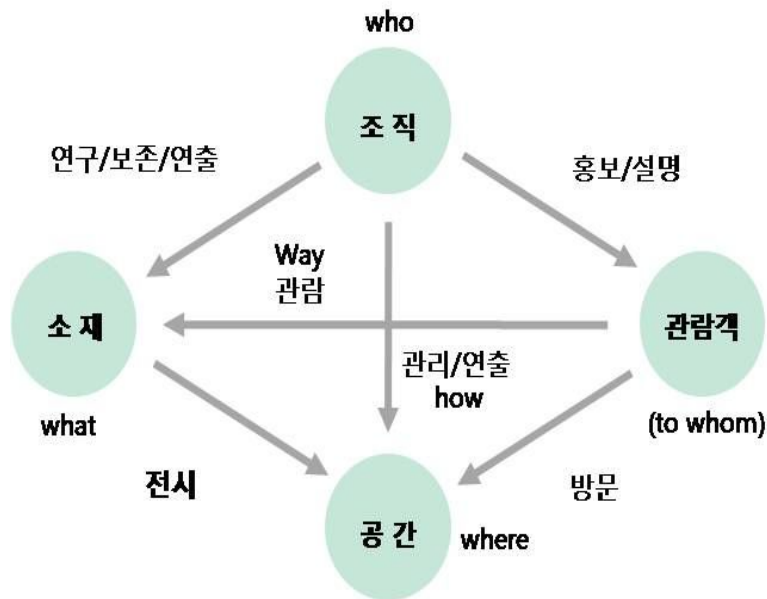
입찰 : 전시의 제작을 외주로 진행하고자 할 때, 각 아이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드로잉이 포함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고, 이 자료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제공해야 된다.

전시의 제작 및 공사작업 : 제작이 시작되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디자이너가 제작의 모든 업무와 진행상황을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 개막, 전시 감독 및 관리 : 전시 개막에 필요한 작업은 개막에 앞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완료해야한다. 각종 홍보, 초대장 배부, 보도자료 작성이 대표적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오늘날의 미술관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소를 6하 원칙(5W1H)에 따라 정리를 해본다면 전시의 4대 구성요소인 예술품에 나타난 소재, 공간, 조직, 관람객은 각각 what(소재), where(공간), who(조직, 관람객)에 해당된다. 관람객과 전시물(소재)의 관계는 전시의 목적인 관람이 why에 해당되며, 조직과 공간의 관계는 전시 연출인 how를 설명해준다. 마지막으로 when은 전시기간 또는 관람시간을 의미하며 각 요소 간의 관계를 보면 다른 요소들과 다소 독립적인 위치에서 전체 구성요소와 포괄적으로 관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2> 전시 구성요소 및 작용²⁰⁾



미술관에서의 전시 종류는 크게 형식에 따라 상설전시, 기획 전시로 나눌 수 있다. 상설전시는 미술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커다란 변화 없이 고정된 전시를 말한다. 상설전시는 전시의 성격이 미술관의 설립목표나 성격과 부합되도록 전시되어야 하며, 전반적으로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의 특징을 잘 보여 줄 수 있어야

20) 박우찬, 전시기획에서 마케팅까지 : 전시는 이렇게 만든다. , 재원, 1998, P9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전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시장 디자인, 부대시설 등에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야하며, 일부 변화와 수정이 가능하도록 가변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기획해야한다.

기획전시는 일반적으로 상설전시의 반대되는 의미의 전시로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상설전시에서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이나 주제를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전시를 말한다. 전시내용과 주제는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한정적이다. 전시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전시효과의 극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 관람자에게 많은 내용을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기획전시는 단 한 번의 전시로 그치기 때문에 전시가 기획될 때 마다 목적, 주제, 전시물 등의 내용이 다양해야 하며, 전시공간은 가변성이 뛰어나야 한다. 기획전시는 일정기간동안 특별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회성 전시로 관람객 및 다양한 문화기관과 언론매체에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선정에 있어서 창의성과 참신함이 요구된다. 기획전시의 큰 장점으로 미술관이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설전시에 어려운 최신의 사회적인논쟁과 이슈, 진보적인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²¹⁾ 기획전시는 일정기간 내에 전시가 이루어지므로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상설전시보다는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미술관은 전시를 통해서 예술작품과 수용자를 이어주는 매개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역할에 따라 예술작품은 그 의미를 달리한다. 1990년대 초부터는 교육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였던 역사적 . 미학적 디스플레이의 성격은 최소화되고 관람객이 큐레이터의 역사적 해석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작품을 읽어내는 경험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미술의 크기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전기적 디스플레이를 부추겼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작품과 전시되는 공간과의 관계가 변화하였고, 일부 작가들에 의해 작업장소가 개인 작업장에서 미술관이라는 공공의 마당으로 바뀌었으며, 작가들이 미술관 자체의 관습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 요소들은 작가와 큐레이터 사이의 균형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작가들은 미술관이 제공한 공간을 단순히 수정하기 보다는 관람객들이 입회하게 되는 독립공간을 마련하게 되는 환경을 창조해내게 되었다.²²⁾

21) 김은영, 국.공립미술관 기획전에 따른 전시공간 연출 분석, 단국대학교, 2009, P19

22) 니콜라 세로타(하계훈 옮김), 큐레이터의 딜레마, P50

문화계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해가고, 관람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술관도 변해야 한다. 대중 모두에게 예술적으로 인정받는 전시를 기획하고 개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과거의 미술관 전시는 그저 관람객에게 ‘보여준다’의 의미였다면 오늘날 미술관의 전시는 미술관을 찾는 다양한 관람객과의 상호소통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적이며 미적인 목적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작품을 단지 보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²³⁾ 새로운 작품들을 엄선해 대중에게 보여주고 이해시켜주는 작업은 미술관이 담당해야 하는 몫이다. 시대에 따라 미술관의 기능이 변화하듯이 전시 또한 그 기능에 맞추어 함께 발전해야 한다.

제3절 제주지역 문화기관의 특징

21세기는 문화의 황금시대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전과 달리 전부터 내려오는 미술관의 고유 기능만을 수행하는 공간에서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창작활동, 교육활동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더불어 각 지역마다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제주지역은 관광특구라는 지역상의 특징으로 인해 많은 박물관 및 테마파크 형식의 전시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가히 ‘박물관 천국’이라 불리고 있지만 그들만의 특징을 살리고 운영방향과 방침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주를 연고로 둔 도내 예술인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전시 공간일 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전국 및 국제적 규모의 현대미술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공립미술관은 턱 없이 모자라다.

제주지역 국·공립 문화기반시설로는 박물관 6개, 미술관 4개가 있다. 국립으로는 국립제주박물관, 공립으로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교육박물관, 제주돌박물관, 감귤박물관이 소재해 있다. 대학박물관으로는 제주대학교박물관이 있다. 한편 미술관은 모두 공립으로 서귀포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이 있다. 이 중 박물관에서는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미술관에 있어

23) 니콜라 세로타(하계훈 옮김), 큐레이터의 딜레마, P93

서는 제주현대미술관과 제주도립미술관이 예산과, 인력, 관람객수에서 가장 활발한 운영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중섭미술관이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는 편이지만 재정과 인력사항 모두 열악한 실정이다.

<표7> 제주지역 문화기반시설²⁴⁾

(단위 : 명,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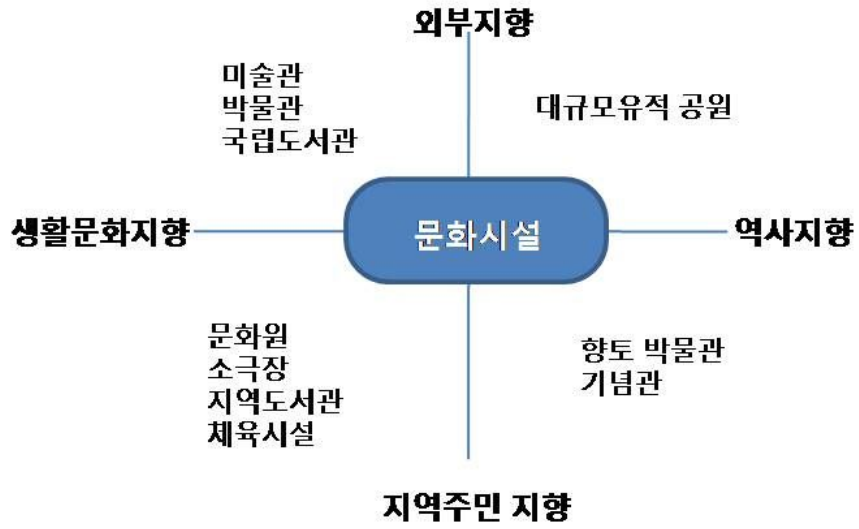
행정단위	인구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제주	567.914	38	11	26	1	14	4	10	0	2	2
제주시	414.116	17	6	10	1	8	1	7	0	2	1
서귀포시	153.798	21	5	16	0	6	3	3	0	0	1

(2008년 12월 31일 기준)

제주지역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특구라는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타 지역처럼 지역의 일부 구역이 관광특구로의 활동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관광특구화가 되어있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제주지역의 문화기관 즉 미술관과 박물관의 관람객은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제주지역 박물관 미술관은 지역주민과의 교류, 지역문화 진작을 위한 일반적인 기능 외에 제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을 염두에 둔 참신하고 흥미로운 기획전을 활성화 할 것이 요구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연적 환경과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생겨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다 전문적이고 인상적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특히 다양한 전시활동에 있어서 제한적인 박물관 보다는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실험적 전시가 규모나 방식의 제한 없이 개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사립 미술관 및 갤러리 보다는 전문 인력과 재정적 지원환경이 더 나은 공립미술관의 활발한 전시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 진다.

24) 문화관광부, 200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09, P13

<그림3> 지역문화 시설의 문화적 지향점²⁵⁾



25) 이흥재, 미술관 지역 문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학 강좌, 2001

제3장. 국내 지역 공립 미술관 현황 분석

2010년 현재 국내 공립미술관은 사단법인 박물관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총 25곳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제주도 외 타 지역 공립미술관은 경기도, 경상남도, 서울, 광주, 대전, 부산,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규모 있는 도립, 시립 미술관이 분포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제주지역의 공립 미술관과, 타 지역의 공립 미술관의 규모와 전시 횟수를 고려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6개 공립 미술관을 선정하여 각 미술관의 설립 배경, 운영 및 전시방향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표8> 전국 공립미술관 운영현황

소재지	미술관 명	운영주체	비고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경기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시	
인천	송암미술관	인천광역시	
부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광역시	
대구	대구시립미술관	대구광역시	2011년 5월 개관 예정
광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광역시	
대전	대전시립미술관	대전광역시	
	이용로미술관	대전광역시	
강원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양구군	
	강릉미술관	강릉시	
	진부령미술관	고성군	
충북	대청호미술관	청원군	
전북	전북도립미술관	전라북도	
	벽천미술관	김제시	
전남	옥과미술관	전라남도	
	보성군립백민미술관	보성군	
경북	군립청송야송미술관	청송군	
경남	경남도립미술관	경상남도	
	마산시립문신미술관	마산시	
제주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기당미술관	서귀포시	
	서귀포시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2009년 기준)

제1절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현황분석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공립미술관이 제주시에 2곳 서귀포시에 2곳으로 총 4개의 공립미술관이 설립되어져 있고 2011년 12월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될 예정이다.

<표9> 제주특별자치도 공립미술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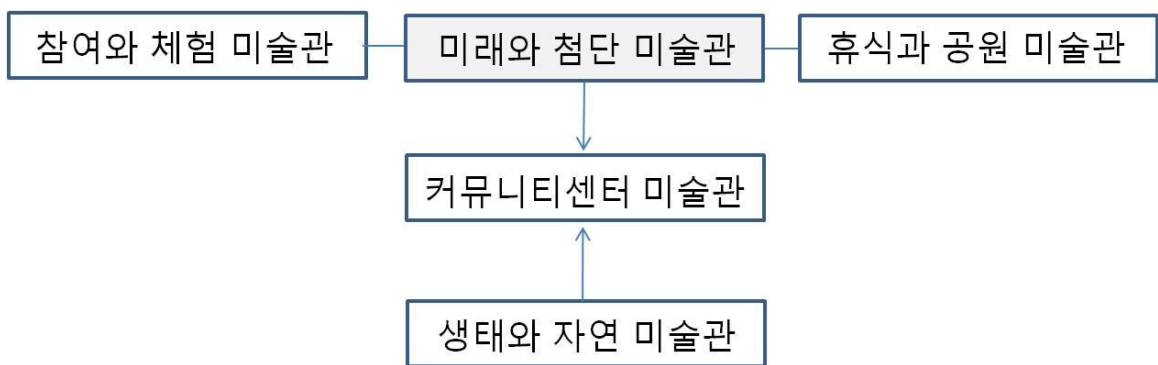
미술관 명	개관일	전시실 구성	연면적(m ²)	비고
제주도립 미술관	2009년6월26일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장리석 기념관, 시민갤러리	7.087	.
제주현대 미술관	2007년9월1일	제1~4전시실	1.939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내 위치.
서귀포 시립 이중섭 미술관	2002년11월	제1~3전시실	5.720	미술관 주변으로 문화의 거리조성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1987년7월1일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환형 형태의 전시실	960	우리나라 최초 시립 미술관

1. 제주도립미술관

문화 황금시대인 21세기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 건립 붐이 일고 있다. 예전과는 달리 단일 기능의 공간에서 복합문화 공간을 추구하며 프로젝트로서의 미술관 건립은 그 규모와 예산에 있어 더 거대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미술관을 건립하는 배경에는 인종,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다양성과 상호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더불어 각 지역마다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미술관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는 2000년 제주도립미술관건립사업의 일환으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뒤이어 2009년 제주도립미술관을 건립하였다. “ 2009년 6월 26일 개관한 제주도립미술관은 지역문화정체성의 지속, 도민문화향수권보호, 지역 . 국가 . 아시아 . 국제미술문화선도 및 국제문화교류의 거점, 문화관광의 콘텐츠 역할 ”을 건립목적으로 명시했다.

<그림4>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계획 및 개념²⁶⁾



전문성을 포함해 대중 지향적 미술관으로 성격을 규정한 제주도립미술관의 조직구성 기본계획은 학예연구실, 기획 관리부, 관리운영부 등 1관장 1실 2부로 적정인원 40명의 인력으로 계획하였으나 개관 후인 2010년 현재는 운영팀, 학예실 등 1관장, 1팀, 1실로 2명의 학예연구원, 1명의 팀장을 포함한 총 17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시는 기본적으로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관전인 《환태평양의 눈》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현재 전시중인 《만레이와 그의 친구들의 사진展》 까지 총 11개의 기획전시가 개최되었다. 제주도립미술관의 전시들은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시민갤러리, 장리석²⁷⁾ 화백 작품 기증을 수용한 장리석기념관 등 총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개관전시 이후 약 6개월 동안 이렇다할만한 전시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아

26) 황시권, 지역의 공공문화 인프라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27) 1916년 평양 출생인 그는 일본에서 미술학교를 졸업한 이후 국전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의원 등을 역임한 원로 작가로서, 6.25전쟁 당시 제주에 피난 와서 4년 동안 생활한 연유로 제주를 소재로 한 작품을 주로 그렸다.

직 제주도립미술관은 기획전시에 대한 준비 및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가 없는 미술관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제주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제주도립미술관은 다양한 전시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5> 제주도립미술관



2. 제주현대미술관

사회적으로 주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제, 고령화 사회, 문화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문화산업의 발전, 다문화주의, 문화의 세계화와 지방화 등의 요인으로 문화적 환경이 변화하였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 확정되면서 2002년 발표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 56조의 향토문화의 진흥과 2003년에 발표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04년 완성된 ‘제주문화예술 중장기 계획’에 따라 도민들의 문화 향수권은 법제적 차원에서 육성, 보호 될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제주도 내 문화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생긴 저지문화예술인 마을²⁸⁾ 내에 입지함으로써 그 시너지

28)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은 1999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색화 아이디어로 채택되어 택지조성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저지리 마을에 인접한 현재 부지가 선정되면서 2001년에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조성 사업에 착공하였다. 문화 예술인 마을은 첫째,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환경적 특징을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

효과가 기대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첫 도립미술관이다. 2009년 9월 1일 개관한 제주현대미술관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지속하고 도민의 문화 향수권 보호, 지역 . 아시아 . 국제미술을 선도한다.”²⁹⁾는 목표를 바탕으로 두고 2007년 9월 1일 개관하여, 관장 및 학예직원 1명, 기타직원 9명으로 총 11명의 인력이 운영 하고 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위의 건립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이미지 제고 및 문화경쟁력 강화, 열린공동체의식 함양, 지역 도시발전 기여, 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표와 같은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10> 제주현대미술관의 운영개념³⁰⁾

사회 환경	내부적 활동목표	외부적 관계목표	운영목표 및 기대효과
현대사회의 다변성,복잡성	전문성 제고	대중성 확보	역동적 미술관
		공익성 확보	효율적 미술관
	창의성제고	교육성 강화	친근한 미술관
		정보성 향상	유익한 미술관
문화향수권	자율성 제고	매력성 제고	미술문화 학교
		미래성 지향	개방된 문화센터
	자립성 제고	국제성 지향	필요한 시민 공간
		소외층 포용	삶의 재충전 공간

2010년 현재 제주현대미술관은 동양화 24점, 서양화 185점, 조각 13점, 서예/문인화 35점, 기타 5점으로 총 262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2009년 9월 《신화를 삼킨 섬 - 제주풍광 전》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제주현대미술관 10월 특별기획 《한국의 멋 - 우리문화 고찰 전》까지 제주의 다양한 특색을 중심으로 기획된 전시, 제주지역 작가들이 중심이 되는 전시, 한국의 현대미술을 조망하는 전시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약 33개의 기획전시를 개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보면 현대미술관을 찾은 관람객은 2007년 8,413명, 2008년 31,066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³¹⁾

조성, 둘째,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전유 공간 조성으로 문화예술의 관광자원화, 셋째, 도시인의 여가선용 공간 등 대중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목표로 조성 되어 2010년 현재 48명의 예술인에게 분양이 완료 되었다.

29)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현대미술관 건립기본계획 연구 중간보고회 자료집, p.13 ~15

30)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현대미술관 건립기본계획 연구 중간보고회 자료집 : 아시아의 눈동자, 세계를 보고 나를 보를 본다. P59

다양한 전시들이 계획되고 개최되고 있으나 아직 전시기획의 큰 카테고리의 부재로 인해 제주현대미술관을 대표하는 전시는 눈에 띄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제주현대미술관만의 특징을 전시활동을 통해 각인시키기 위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6> 제주현대미술관



3. 서귀포시립 이중섭미술관

대향 이중섭 화백은 6.25 동란 시절 서귀포에 거주하면서 아름다운 풍광과 넉넉한 인심을 소재로 하여 ‘서귀포의 환상’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중섭의 제주도 체류기간은 비록 1년 남짓이었지만 그의 예술세계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고, 척박한 생활에 굴하지 않는 창작열의와 예술성을 후대에 널리 기릴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 모두가 이중섭의 예술적 발자취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미술관을 설립했다. 1997년 ‘대향전시실’을 건립하면서 출발한 이중섭미술관은 2002년 11월 28일 ‘이중섭 전시관’을 개관하였다.

2006년 기준 「미술관 백서」를 살펴보면 이중섭미술관 운영예산은 2억1234만1천원으로서 인건비 9710만4천원, 작품구입비 1천만원, 작품관리비 1860만원, 전시개최 2천만원 이외에 나머지는 시설유지, 공공요금, 기타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수입예산은 총 6950만 1천원이며 관람료 3129만원, 운영수입 3821만1천원 가운데서 관광객들을

31)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09 / 2008 / 2007

대상으로 한 문화상품 판매율이 높은 편이다.³²⁾

미술관은 명예관장 아래 자격증 소지 학예연구사 1명을 포함해 총4명의 인원이 운영하고 있다. 전시활동은 상설전시 및 연 2~3회 안팎의 기획 전시로 운영된다. 기획전시는 2007년 특별기획전 《해우(邂逅)57, 서귀포로 오는 이중섭 가족》전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진행 중인 기획전시 《꿈꾸는 노마드 - 섬의 시간》전 까지 총 11번의 기획전시를 개최하였다. 개관일 이후 약 5년이 지난 후에 기획전시 활동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기획전시의 테마는 대부분 이중섭의 작품세계 및 삶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미술관은 2008년 기준 자료를 볼 때 한국화 19점, 서양화 86점, 판화19점, 공예1점, 미디어아트 1점, 기타 12점 등 총 138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³³⁾

1997년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이중섭 거리 명명과 이중섭의 거주지 복원을 실시한 이래 1999년 문화관광부의 ‘이달의 문화인물’³⁴⁾ 선정 및 ‘이중섭 문화의 거리’ 공식지정을 기념해 그해 9월 처음 마련한 ‘이중섭 세미나’를 해마다 개최해 오면서 이중섭 화가의 녀과 예술혼을 기리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다양한 거리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그림7> 서귀포 시립 이중섭미술관



32) 국립현대미술관, 2006년 미술관 백서, P 253~258

33) 황시권, 지역의 공공 문화인프라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34) 문화관광부는 1990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국민의 귀감이 되는 인물들을 매달 선정해왔다.

4. 서귀포시립 기당미술관

1987년 7월 1일 개관한 기당미술관은 서귀포 출신 재일동포 기당 강구범이 제주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세운 뒤 서귀포시에 기증한 미술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미술관이다. 직제는 명예관장 밑에 전문직 1명을 포함하여 모두 2명이 있으며, 전문직의 경우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 소속하고 있다.

2006년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미술관 운영예산은 1억3657만4천원으로 인건비 4천만원, 작품구입비 4천만원, 작품관리 1410만원, 전시개최 5백만원 이외에 나머지는 시설유지 홍보, 공공요금, 기타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수입예산으로는 총 215만5천원이며 관람료 136만 4천원, 운영수입 79만1천원 등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소장품 현황 또한 2006년 기준으로 한국화 139점, 서양화 270점, 판화 27점, 조각 25점, 공예 2점, 서예 164점으로 총 627여점을 소장하고 있다.³⁵⁾

전시활동은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포함하여 매년 5~10회 개최하였고, 관람인원은 2006년 기준 8,100명으로 매년 1만 명 내외가 미술관을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새로운 관광코스인 제주올레의 인기로 인해 제주올레 6코스에 자리하고 있는 이 미술관의 관람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급증하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장 작품 상설전시 및 대관전시보다는 새로이 들어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등 인근 전시실과 더불어 기획전시 중심의 미술관 체제로 방향전환을 꾀해야할 것이다.

<그림8> 서귀포 시립 기당미술관



35) 국립현대미술관, 2006년 미술관 백서, p. 253~258

제2절 타 지역 공립 미술관 현황

2010년 현재 국내에는 서울을 포함한 7개의 광역도시 중 서울, 부산, 대전, 광주 4개의 도시에 시립미술관이 있으며,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3곳에 도립미술관이 소재하고 있다. 인천시립 미술관은 2014년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시립미술관은 2011년 5월 개관 예정이다.

<표11> 제주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 선정 공립 미술관 현황

미술관 명	개관일	전시실 구성	연면적 (㎡)	비고
서울시립미술관	1988년8월19일	특별전시실 6개, 상설전시실 1개	13,472	분관 2개, 창작스튜디오 1개 구성
광주시립미술관	1992년8월12일	전시실 4개, 어린이 갤러리	5,472	.
부산시립미술관	1998년3월20일	대 전시실 8개, 소 전시실 6개, 상설전시실 2개 (기증실)	21,426	.
대전시립미술관	1998년4월15일	전시실 5개	8,407	.
경남도립미술관	2004년6월23일	전시실 5개, 전시홀 1개, 야외조각전시실	8,886	.
전북도립미술관	2004년 10월	전시실 5개	6,804	.
경기도미술관	2006년10월25일	로비갤러리, 주 전시실 야외공원	8277,80	.

1. 서울시립미술관

미술작품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미술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여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립미술관은 1988년 8월 19일 경희궁지 내 서울고등학교 건물을 보수하여 개관하였다가 2002년 5월 중구 서소문동 옛 대법원 자리에 이전하여 새로이 재개관하였다.

개관 이래 관장 없이 전시체제만 유지해 오던 상태에서 벗어나 1999년 6월 예술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하는 미술관장 직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2003년 1월에는 최초 공개 모집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미술관장을 선임하여 2010년 현재 1관장 2부(총무부, 학예연구부) 3과(교육홍보과, 전시과, 수집보존과) 편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관장 직속으로 미술시책 방향정립, 미술사업 계획수립, 대관허가 심의, 소장 작품 구입 등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진흥을 위해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는 《천경자의 혼》전이 상설전시로 진행되고, 기획전으로는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신의 손 - 로댕》展(2010), 《행복을 그린 화가 : 르누아르》展(2009), 《활을 쏘는 헤라클레스 거장 브루델》展(2008), 《불멸의 화가 : 반 고흐》展(2007)등 대형 국제전시와 국제적으로 각광 받던 거장들의 전시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7월 600년 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한 경희궁 분관에서는 서울시립미술관 시민아카데미 전시회《환경 상상》展(2010), 《중앙현대미술대전》(2009), 《서울아세아미술초대 전》등 한국의 청년작가와 젊은 세대를 위한 예술창조의 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2004년 개관한 제2의 분관인 남서울 분관 또한 《자아 이미지 : 거울 시선》展(2008), 《추상미술, 그 경계의 유희 展》(2007), 《한국현대사진의 풍경 展》(2007) 등 청년세대의 실험적 작품 및 새로운 모색을 추구하는 열린 공간이자 도심권이면서 문화적으로 소외돼 있는 서울 남부지역 미술문화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 관람객은 2006년 991,961명, 2007년 1,014,283명, 2008년 1,088,63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³⁶⁾

2010년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은 천경자 화백의 기증 작품 93점을 비롯하여, 한국화 454점, 서양화 884점, 판화 308점, 조각 173점, 공예 98점, 서예 21점, 미디어아트 10점,

36)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09 / 2008 / 2007

사진 280점, 설치 9점 등 모두 9개 부분에 총 2,137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그림9> 서울시립미술관



2.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광주시립미술관은 1992년 8월1일 지방공립미술관으로 국내 처음으로 개관한 미술관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예술공간의 확충, 수준 높은 기획전시를 통한 지역미술발전에 기여, 쾌적하고 정취 있는 도심 휴식 공간조성,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국내외 미술 교류 확대 등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지역미술관을 기본 목표로 가지고 있다. 2007년 10월에는 국제규모의 새로운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을 중외공원 내에 신축 개관 했다.

본 미술관은 관장 밑에 총무과, 시설관리과, 전시운영과, 학예연구실, 금남로 분관 등이 있다. 특히 전시운영과에서는 고유한 전시업무를 포함하여 미술작품의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및 수장고와 소장품의 보존관리·운용에 관한 사업 이외에도, 미술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술관의원회를 담당하는 등 업무범위를 폭넓게 처리하고 있다.

1996년 시립미술관의 기구 확대 개편과 함께 광주비엔날레를 관장하여 우리나라 최

초의 비엔날레 개최도시가 되었으나 1999년 비엔날레와 완전 분리되면서 미술관의 고유기능인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등의 전시사업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사업과 지역미술을 활성화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3년 금남로 분관 개관, 2008년 8월 시립미술관 인사동 갤러리 LIGHT 개관, 2008년 9월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개관, 2009년 12월 중국 북경창작센터 개관 등을 통해 미술관의 활동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광주시립 미술관의 전시는 매년 본관에서 연간 약 6~7회 정도의 기획전시와 약 2~3여회의 상설전시를 개최하고 하정웅 컬렉션 전시실은 항시 전시중 이다. 하정웅 컬렉션 관련 기획전시는 매년 2~3회씩 개최되고 있으며, 하정웅 컬렉션 중심의 전시와 하정웅 명예관장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남로 분관에서는 규모가 다소 작은 기획전시가 개최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연 관람객은 2006년 66,712명, 2007년 79,499명, 2008년 229,77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에 관람객이 증가 폭이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2년마다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소장품은 타 미술관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하정웅 컬렉션과 미술관 자체 소장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래의 표를 보면 기증컬렉션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12> 광주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현황

구분	계	순수소장	하정웅기증
계	3,516	1,294	2,222
한 국 화	398	371	27
양 화	1,327	533	794
판화드로잉	1,184	91	1093
조 각	118	90	28
뉴 미디어	18	7	22
공 예	83	79	4
사 진	294	41	253
서 예	81	70	11
디 자 인	9	9	0
건 축	4	3	1

(단위 : 점)

<그림10> 광주시립미술관



3. 부산시립미술관

1998년 3월 20일 개관한 부산시립미술관은 부산미술사를 테마로 한 전시, 부산작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획된 전시들을 비롯해 국내 미술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전시들을 연중 개최하여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해양 수도에 걸맞은 문화공간 제공으로 미술활동의 활성화 기여 등을 운영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개관 후 부산시립미술관은 각 장르별 미술작품과 자료의 수집, 전시, 연구와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으로 21세기 동북아시아 시대의 해양수도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미술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술관 조직은 임명 또는 공모에 의한 관장 아래 관리과와 학예연구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운영인력은 학예연구사 7명, 그 외 전문직 1명 등 총 45명에 이른다. 특히 관리과 안에는 총무담당, 교육홍보, 전시담당, 시설관리담당을 두어 세분화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활동은 매년 약 1~2회 정도 개최되는 상설전시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증전과 매년 약 17회 정도 개최되는 기획전시시, 《부산미술대전》,《부산비엔날레》등의 대관전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여러 미술관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전을 열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 관람객은 2006년 458,498명, 2007년 339,234명, 2008년 504,568명으로 연도별로 증감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연 관람객의 증감 차는 부산비엔날레의 영향으로 보여 진다.

미술관은 부산미술에 대한 연차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부산미술사를 정리하는 한편 부산미술과 한국현대미술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해마다 구입, 소장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화 129점, 서양화 969점, 드로잉 & 판화 443점, 조각 121점, 공예 18점, 뉴미디어 12점, 사진 112점, 서예 2점, 기타 31점으로 총 1806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그림11> 부산시립미술관



4. 대전시립미술관

1998년 4월 15일 개관한 대전시립미술관은 대전, 중부권의 최초 공공미술관으로 지역 미술은 물론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 모두가 그 성과를 함께 누림으로써 보다 여유롭고 깊이 있는 삶을 공유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 현대미술을 지향하는 특색 있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인 특성화와 내실화를 추진한 결과 2001년, 2002년 연속으로 문화관광부 주관 전국문화기반 우수시설 박물관, 미술관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모범적인 미술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하고 있다.³⁷⁾

37) 국립현대미술관, 2006 미술관 백서, P368

본 미술관의 조직구성은 관장 밑에 관리담당과 전시담당, 학예연구실 등 세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미술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립미술관의 전시는 두가지 목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첫째, 국내 미술사에 있어 그 성과나 의의에 대한 연구와 평가, 작품과 자료의 수집, 정리가 미흡한 근대 이후의 작품을 복원, 정리, 보존하는 것이고, 둘째, 미술활동 전반의 중앙 편중으로 인해 발표의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지역미술인, 유망한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의 정례화이다. 이 두 가지 목표를 통해 대전시립미술관의 전시활동은 근대 이후 현대미술의 새로운 동향이나 우수한 미술작품에 대한 접촉이 제한적이었던 지역민에게 다양한 현대미술의 양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미술인에게 각 지역 작가들과 교류의장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립미술관의 연 관람객은 2006년 229,114명, 2007년 188,568명, 2008년 174,088명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에서 언급한 전시활동의 두 가지 목표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할 것이다.

미술관의 소장품은 2010년 현재 한국화 152점, 서양화 317점, 판화·드로잉 183점, 조각 67점, 공예 . 서예 51점, 뉴미디어 5점, 기타 11점으로 총 786점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림12> 대전시립미술관



5. 경남도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은 경상남도 지역 문화발전의 상징사업으로 320만 도민의 미술문화 향유욕구에 부응하고, 미술작품 및 자료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국제교류 등 미술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행사를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 6월 23일 개관하였다.

경남도립미술관 조직은 관장을 중심으로 운영과장, 그 산하기구에 관리과와 학예담당 계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장을 비롯해 학예직 5명, 기타직원 11명으로 총 17명의 인력이 있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작품평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도립미술관은 관리중심의 조직 유형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전시기획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³⁸⁾

경남도립미술관의 소장품 구입계획의 기본방침은 경남미술사를 정립하고 경남지역 출신의 작고 및 원로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는데 원칙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2010년 현재 미술관 소장 작품은 한국화 73점, 회화 342점, 조각 62점, 판화 268점, 공예 25점, 사진 28점, 서예 38점, 드로잉 30점으로 총 866점이다.

미술관은 매년 《지역작가 조명전》, 《20세기 경남미술》, 《경남미술사 정립전》 등 지역예술발전을 위한 전시를 비롯해 해외미술 소개, 학술연구 및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개관당시 미술관 소개 및 전시홍보물을 주 상영하던 영상실은 현재 비디오 및 프로젝트아트 등 첨단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등의 다양한 전시활동을 통해 지역미술을 조명하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13> 경남도립미술관



38) 양미경,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기획에 관한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2007

6. 전북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은 기획전시, 상설전시, 미술품의 수집과 보존, 국내작가발굴과 국제교류전을 통해 전북의 많은 작가들과 도민들의 생활 속에 폭 넓은 미술공간을 제공하고 많은 예술문화 공간과 연계하여 전북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목적으로 모악산 자락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4년 10월 개관하였다.

전북도립미술관의 조직을 살펴보면 관장을 중심으로 학예연구실, 관리담당, 전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장을 포함한 학예연구직 4명, 기타직원 16명으로 총 21명의 인력이 운영 하고 있으며, 지역미술의 정체성과 미술의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목적 하에 수집된 소장품은 2010년 기준으로 한국화 142점, 회화 318점, 조각 38점, 판화 & 드로잉 112점, 공예 9점, 사진 114점, 서예 95점으로 총 828점으로 집계 된다.

전북도립미술관 관람객 현황은 2006년 108,574명, 2007년 124,818명, 2008년 128,401명으로 모악산 자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꾸준히 유치하는 이유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연평균 연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꾸준히 유치하고는 있으나 비슷한 수치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람객 정체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 전북도립미술관은 일반 전시운영 뿐만 아니라 1년에 2차례, 2달~3달 과정으로 국내·외 미술계동향, 작가소개, 작품의 기법 등의 내용으로 소개자는 미술이론 강좌와 실기강좌를 운영하고, 미취학 학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아틀리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강당과 야외무대에서 공연 및 영화상영,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그림14> 전북도립미술관



7. 경기도미술관

2006년 10월 25일 개관한 경기도미술관은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도립미술관으로 경기도의 문화역량 배양과 더불어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지역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여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관장 및 학예직 10명과 전문직 3명, 기타직원 4명으로 총 1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시공간은 순환통로 및 가변식벽 시설을 두어 다양한 동선을 활용하는의 전시를 가능하게 하고, 8.5m 높이의 천장은 개폐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자연 채광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경기미술관은 동시대 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들의 문화 향수 권을 신장한다는 임무에 충실하고자 개관전으로 《호안미로 상징의 세계 전》을 개최하고 《신소장품 전》, 《경기미술프로젝트》, 《현대미술의 동향 ex n' ex》, 《크로싱장르 전》등 다양한 테마의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위해 2009년 10월 경기창작센터를 개관하였다. 또한 2010년 현재 미디어 작품 25점, 설치미술 27점, 입체작품 63점, 평면작품 163점 등 총 276점의 소장품을 이용해 지역의 문화 예술 공간에 선보이는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을 운영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확장해 가고 있다. 관람객 현황 또한 2007년 116,569명, 2008년 139,96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15> 경기도미술관



제3절 소 결

이상에서 제주지역 공립미술관과 국내지역별 대표적인 공립미술관 현황조사를 통해 미술관의 설립과 목적과 운영방향 및 전시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역민의 문화향유와 문화교육을 위한 종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미술의 정립과 발전, 더 나아가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미술관들의 설립 목적 및 기대효과의 공통된 내용이다. 즉, 국내지역 미술관들은 거의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 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설립목적은 기본으로 하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 및 국제자유도시라는 지리적·행정적 특징에 따라 ‘지역·국가·아시아 국제미술을 선도하는 국제적인 미술관의 조성’, ‘문화관광의 컨텐츠 역할’ 등이 추가되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위의 미술관들은 서울시립미술관과 제주서귀포기당미술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거 10년 이내에 설립된 미술관들이다. 같은 목적과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각 지역의 대표 미술관들인 셈인 것이다. 왜 갑자기 10년 사이에 많은 지역에서 미술관을 설립했을까? 그 이유는 앞의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장려하고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문화관광 개발 사업 중 공립미술관 추진 및 지원 등 국가 정책들이 각 지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 정책과 지역자치구들의 발전 계획에 따라 설립된 지역 공립미술관들은 아직 인력 운영 및 각 분야의 운영체제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 미술관 별로 특징적인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기획전시 및 연례 전을 개최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제주지역 공립미술관들은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목적 및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특색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슷한 전시를 개최하거나 연이어 전시를 개최하지 못하여 지역 관람객 및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음 장에서는 타 지역 공립미술관의 전시활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공립미술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4장. 공립미술관의 전시활동 사례조사 및 분석

미술관의 핵심은 전시에 있다. 미술관은 유물을 쌓아놓는 유물 창고가 아니라 유물을 전시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해야만 살아 있는 미술관이 되는 것이다.³⁹⁾ 나아가 동시대 지역작가들의 창작과 연계된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더욱 적극적인 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친근한 지역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 특유의 예술문화를 발굴, 지원, 홍보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 공립미술관의 전체적 전시 현황을 살펴보고 그 중 대표적인 전시유형을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제1절 지역별 공립미술관의 전시활동 현황

본 논문은 1990년대 초반에서 현재까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국내 지역의 공립미술관의 전시활동을 살펴보고 분석해봄으로써 제주지역 공립 미술관이 앞으로 지향하고 개선해야 할 전시기획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표가 있다.

다음 표는 각 지역미술관 전시활동 현황이다. 전시현황은 각 미술관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정리 하였다.

<표13> 타 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현황

서울시립미술관 ⁴⁰⁾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1988~2001	총계
기획전	27	43	12	14	16	15	15	8	6	64	220
상설전	4	1	3	2	4	1	1	.	1	.	17
특별전	2	2	2	2	2	2	1	1	1	.	15

39) 정은영, 공립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 전시활동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04, P31

40) 출처 : <http://seoulmoa.seoul.go.kr>

광주시립미술관⁴¹⁾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1992~2001	총계
기획전	26	31	28	24	20	18	17	9	2	64	220
하정웅 컬렉션	3	2	2	3	2	3	2	1	.	1	19
소장품 전	2	3	3	1	1	10

부산시립미술관⁴²⁾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1998~2001	총계
기획전	15	17	14	15	15	23	15	18	14	53	199
대관전	35	63	37	63	41	48	35	.	.	.	322

대전시립미술관⁴³⁾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1998~2001	총계
기획전	15	19	22	10	8	19	15	13	5	18	126
상설전	.	.	.	1	2	3

경남도립미술관⁴⁴⁾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총계
소장품전	1	4	1	.	.	2	2	10
20세기 경남미술전	.	2	1	3
지역작가 조명전	.	3	2	3	.	2	4	14
지역미술사 정립전	1	1	2	.	.	1	1	6
현대미술 동향전	1	3	3	.	.	2	.	9
신나는 미술관전	1	2	1	1	1	.	.	6
특별전	1	3	1	5	.	4	7	21
옥외전	.	1	1	2
순회전	3	2	2	2	.	.	.	9
영상전	1	4	1	6

서울시립미술관 연보 1005~2007

41) 출처 : <http://www.artmuse.gwangju.go.kr>

42) 출처 : <http://art.busan.go.kr>

43) 출처 : <http://dmma.metro.daejeon.kr>

전북도립미술관 ⁴⁵⁾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총계
기획전	3	10	10	7	14	14	.	58
상설전	4	3	1	8
도정기획전	2	17	13	32
서울관	12	12

경기도미술관 ⁴⁶⁾						
	2010	2009	2008	2007	2006	총계
신소장품전	2	1	1	.	.	4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1	2	1	.	.	4
크로스 장르	.	2	1	.	.	3
현대미술의 동향 ex n' ex	2	2
기타 기획전	4	1	2	5	1	13
상설전	1	1	.	.	.	2

각 지역별 미술관의 전시활동을 보면 분류체계는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기획전시와 상설전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을 때 기획전시의 비중이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그 요인은 대개의 지역 공립 미술관이 설립된지 10여년 안팎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어 충실한 소장품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당대 미술을 대상으로 삼는 현대미술관인 경우 역사적 미술작품의 조명, 수집 보다 당대 예술창작과 미술작품을 전시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적극 수용하고 나아가 창작을 이끌어 내는 방향을 더욱 바람직한 기획전시의 취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문화의 중요성과 함께 예술문화를 전면에 내세워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지역에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방식으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

44) 출처 : <http://www.gam.go.kr>

45) 출처 : <http://www.jbartmuse.go.kr>

46) 출처 : <http://www.gma.or.kr>

술관으로 지역의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없다. 지역 고유의 문화적, 지역적, 예술적 특징 및 역사가 녹아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전시를 통해 예술과 문화를 소개하고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지역미술관의 특성화를 위한 전시기획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1. 서울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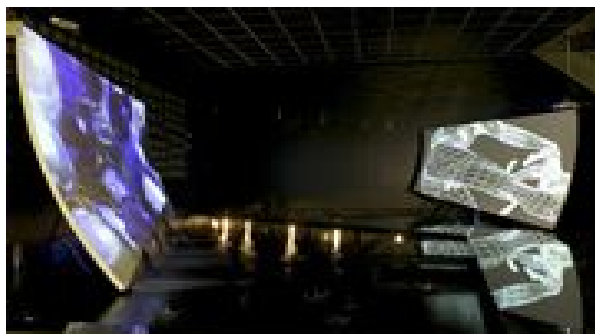
서울은 6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이다. 수도란 한 나라의 통치기관이 있는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로 대부분 인구 규모가 크고 경제·문화의 중심지인 경우가 많다. 또한 서울은 긴 역사와 함께 만들어진 역사 수도로서의 수 세기에 걸쳐 한국 정치·경제의 중심이었다. 이처럼 수도라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의 전시주제는 타 지역 공립 미술관보다 정치적이슈, 경제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03년 《청계천 프로젝트1-물위를 걷는 사람들》, 2005년 《청계천 복원기념 청계천을 거닐다. 전》 2006년 《서울 숲, 야외조각 심포지엄 전》, 2008년 《배를 타고 가다 ‘한강르네상스, 서울’ 전》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2003년 《청계천 프로젝트1-물위를 걷는 사람들》, 2005년 《청계천 복원기념 청계천을 거닐다. 전》이 두 개의 기획전시는 2003년 7월 청계천 복개를 앞두고 2003년 당시의 청계천에 대한 현상적 양태를 조명하였고, 2005년 9월 청계천 복원 공사 완료 시점에 이르러 같은 주제의 또 다른 형태의 기획전시가 진행되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 프로젝트인 ‘청계천’은 필연적으로 다양하고도 상반되는 정치적 견해들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 전시는 청계천 복원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인 여러 공방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도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청계천을 도시지형적인 의미를 가지기 전에 이른바 서울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에게 있어 집단적인 기억과 삶이 연계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청계천 복원기념 청계천을 거닐다. 전》은 청계천 복원 공사가 마무리 기념 ‘새물맞이’ 행사가 개최되는 즈음에 진행되었다. 전시의 제목, 전시 개최의 시기를 보면 서울시 당국과 서울시립미술관의 관계를 미루어 본다면 청계천 전시는 당시 자평, 타평 21세기형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 받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긴밀하게 연관된 전시이다.⁴⁷⁾ 정치적인 부분을 예술로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또 하나의 전시

가 2008년 《배를 타고 가다 ‘한강르네상스, 서울’ 전》이다. 2008년 하이 서울 페스티벌 시기와 맞춰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인 ‘한강 르네상스’를 주제로,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예술가들의 다양한 재해석을 통해 ‘한강’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현재와 미래의 환경을 가늠해 보는 전시이다. 한강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 생명력을 불어 넣는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한강을 비롯한 서울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이 전시는 작은 돛단배로 한강을 주행(舟行)하여 서울의 역사, 풍광, 가치관의 변화를 거슬러 올라가며 삶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한강의 새로운 내러티브를 찾아내기 위한 전시가 되었다. 그러나 전시기획의 시작점은 단순히 서울의 상징인 한강이 주제라기보다는 정부의 대운하 건설 정책과 관련하여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정책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양립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각에서 이 새로운 물길의 흐름을 관측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획 및 진행되는 위와 같은 행정전시들은 정치 및 사회적 이슈를 무거운 정치적 해석에서 벗어나 문화와 역사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대중에게 보다 다양한 측면으로 인식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단순히 한 나라의 수도에 위치라고 행정기관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라의 대규모 정책을 예술전시라는 포장지에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거나 역사 또는 예술이라는 장르에 회색하여 정책을 광고하는 형태의 부정적으로 외곡 된 측면이 공존하는 전시의 형태이다. 현재 가장 이슈화되는 정치, 경제의 정책을 테마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기획방향, 참여 작가 및 작품선정에 있어 다른 기획전시에 비해 민감하고 더욱더 철저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전시이다.

<그림16> 《2005 청계천을 거닐다 전》

전시관



<그림17> 《배를 타고 가다가

한강르네상스 서울 전》 전시관



47) 강수미, ‘청계천, 정치문화예술의 지평을 거닐다.’, 월간미술, 2005. 11

서울시립미술관은 위에서 언급한 전시 외에도 우리나라 문화의 중심적이 역할을 위해 《서울미술대전》, 《한국현대구상회화의 흐름전》, 《City_net, Asia》 전 등 연례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미술대전》, 《한국현대구상회화의 흐름전》은 국내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시로 국내 현대미술의 동향을 진단하고 대한민국 미술의 미래를 진단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전시인 반면 《City_net, Asia 전》은 아시아 주요도시의 현대미술 동향과 현 주소를 알아보고 공유하고 현재 아시아인들의 삶에 모습에 기초하고 미래를 진단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이다. 이 전시는 아시아 주요도시에 위치한 현대미술관들의 네트워크로, 각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동시대 지역의 사회문화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그에 부합하는 작가를 선정하여 전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젝트 형식의 기획전인 《City_net, Asia 전》 아시아 각국 공공미술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한다. 또한 아시아 문화권 내의 다양한 작가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이 속한 사회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앞으로 아시아 미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그림18, 19> 《City-net Asia 2009 전》 전시관



나라의 모든 기능과 활동의 중심이 되는 수도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은 《City-net Asia 전》과 같은 프로젝트 형식의 기획전시를 통해 타 지역의 공립미술관들 보다 오늘날 다변화된 사회문화 현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광주시립미술관

광주광역시에는 호남 지역의 유일한 광역시로서 호남지방의 행정·군사·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를 이루어 온 기반으로 행정 및 기업관리기능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호남평야의 곡창지대와 임해공업지대 및 수산업 지역을 배후지로 가지고 있어 호남경제권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 그리고 광주는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광주학생운동, 1980년 나라의 민주화를 외쳤던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의 민중의 아픔과 한의 역사가 함께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광주시립미술관은 2010년 5.18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5월의 꽃 전》, 21세기의 전쟁과 평화전, 2005년 광주민주화 운동 25주년 기념 《광주 피에타 전》, 2003년 광주민주화 운동 23주년 기념 《...그리고 相生아》展, 1999년 5.18민주항쟁 제19주년 기념 《고암 이응노 10주기》展 등 기간별로 아픈 역사를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테마로 하는 전시는 광주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중심 테마로 선정하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는 많은 현상들을 반성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찾고 좀 더 풍부한 상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광주의 역사적 사건이자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었던 5.18 민주항쟁을 테마로 한 전시는 1980년 5월 광주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군에게 무력으로 제압당하며 끔찍한 희생을 겪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이 녹아져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민주화 운동에 용감히 앞장섰던 분들의 정신을 기념하고자 함을 기반으로 기획된 전시이다. 또한 전시를 통해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광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광주항쟁의 의의를 미술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한다. 2010년 5.18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5월의 꽃 전》, 《민주 인권 그리고 광주 하정웅 컬렉션 특별 전》, 2005년 광주민주화 운동 25주년 기념 《광주 피에타 전》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획되는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시되는 예술작품의 장르, 구성방식 및 관람객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다양성으로 두어 5.18 민주항쟁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25주년 기념, 30주년 기념이라는 타이틀의 사용은 전달하고자 하는 전시주제를 부각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역사속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속적인 전시는 지역의 이미지 구축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전시를 수립에 있

어서도 의의를 둘 수 있다.

광주 민중항쟁은 미술가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역할과 의무를 묻는 동시에 미술사적으로 민중예술 이라는 새로운 미술운동을 출현 시킨 직접적인 사건이다. 민중미술은 사회현실을 날카롭게 폭로하고 비판하는 증언으로의 미술을 강조하고, 감상을 위한 전시장 활동을 벗어나 벽보 등 선전과 현장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5.18 민중항쟁을 기본테마로 한 전시 외에도 지역미술 적립을 위한 전시 및 광주의 다양한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들 또한 진행되고 있다. 광주지역미술 적립을 위한 전시로는 지역미술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광주미술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로는 2010년 《남도의 숨결 전우회 초대 전》, 2009년《남도미술의 흐름 전》, 2008년 《남도미술을 찾아서 전》 등의 전시는 대표적인 예이다. 2010년 초대전 형식의 기획전시는 1974년 설립된 미술단체 전우회는 광주전남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온 유서 깊은 미술단체이다. 광주전남의 풍경을 그림으로 접하면서 지역민은 일상에서 미처 보지 못하던 지역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타 지역의 관람객들에게는 광주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전시이다. 2009년《남도미술의 흐름 전》, 2008년 《남도미술을 찾아서 전》은 지역미술 적립전 형태의 전시로 특정작가, 특정장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미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전시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남도지역은 예로부터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신들의 삶을 예술과 종교로 승화시키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 왔다. 또한 수많은 문장과 시인들을 배출하였고 판소리, 남종화, 나아가 광주비엔날레 등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전시이다. 또한 광주지역의 미술이 구상주의와 전통적인 동양화가 타 지역 보다는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주는 특징적인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여 광주미술이 발전해온 방향성이 명확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확한 특징이 자칫 전시 소재 및 구성방법에 있어서 진부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부산시립미술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항구도시인 부산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방성이다. 부산은 교류를 통해서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류의 관문 도

시인 샘이다. 20세기 초부터 부산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으로서 경제와 문화가 흐르는 교류의 창구였고 지금까지도 부산은 바깥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장점을 수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문화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이러한 문화적 성장을 기반으로 2009년 《뜻밖의 일상》展, 2008년 《아트인부산 2008, 돌아와요 부산항에》展, 2007년 《도큐멘타 부산3: 일상의 역사》展, 2005년 《초특가, 부산투어 패키지》展, 2004년 《은유의 도시: 풍경으로 본 부산》展, 2001년 《부산, 일상과 기억의 풍경》展 등 해마다 다양한 주제와 테마로 부산만의 특징을 예술로 승화한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들 중 부산의 특정장소와 그 속에서 보여지는 도시의 모습을 이야기한 2009년 《뜻밖의 일상》展은 2009년 7월 25일에서 10월 4일 약 71일간 개최된 이 전시는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전시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였으나 이제는 한켠으로 밀려난 용두산 공원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통해 현대도시가 만들어 내는 일상적 삶의 단면을 살펴보고 용두산 공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현대 도시의 모습과 도시적 삶을 예술적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뜻밖의 일상》展은 단순히 용두산 공원의 사실적인 모습을 묘사한 작품보다는 공원이 내포하는 이미지를 현대도시의 모습과 오버랩 되도록 다양한 방법과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이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용두산 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며 현대 도시의 모습과 도시적 삶을 떠올리는 것으로 확장해 은유적으로 표현된 전시로 개인, 사회, 역사라는 의미망 속에서 현대 도시가 만들어내는 일상적 삶의 지형의 한 단면을 그려볼 수 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부산의 지역적 특징 및 지역민들의 삶 반영한 전시뿐만 아니라 1998년 《부산미술 재조명전》, 《오늘의 부산, 한국화 展》, 2001년 《부산미술의 조형적 계보 찾기 I》, 2002년 《부산미술의 계보찾기IV》, 2005년 《도큐멘타 부산: 자료로 보는 부산미술 I》, 2006년 《도큐멘타 부산: 자료로 보는 부산미술II》, 《부산의 미술가들2: 구상에서 비구상으로》, 2007년 《도큐멘타 부산3: 일상의 역사》, 2008년 《부산미술 80년, 부산의 작가들》등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여 부산지역 미술의 역사를 정립하고 현재미술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미술이 서양양식의 미술양식을 받아들인 때는 일제강점기 때이다. 부산지역에서 서양양식을 받아들일 때, 조선미술전람회⁴⁸⁾는 식민통치에 모든 것을 따르는 식민지미술로의 양식을 다시 제구성

48) 조선미술전람회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주관하여 1922-1994년 모두 23회에 걸쳐 개최한 종합미술전람회로 일제는 3.1운동을 계기로 문화통치를 표방하는데 이 과정에서 1921년 조선인 미술가 단체인 서화협회가 문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 근대미술은 전통과의 단절과 스스로 하는 발달의 제약, 그리고 현실대응결의 상실이라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한일 합방 후 부산은 일본인의 식민지 전초기지로 활용되면서 많은 일본인이 부산으로 넘어와 거주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일본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부산의 미술은 일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고 임응구, 서진달, 김재선 작가 등 부산미술에 영향을 끼쳤던 많은 작가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서양화를 배웠다. 그 당시 부산미술전람회, 제1회 부산영화전람회, 조선미전 지방이동전 등의 전시를 열게 된다. 그 후 1940년대에는 많은 미술양식을 수용하지만 식민지라는 암흑기를 겪고 있었기에 미술 또한 암흑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암흑기를 거쳐 1950년대는 대한민국이 광복을 한 이후로 다양한 내용을 모색하게 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표현양식이 다양해지면서 부산미술의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된다. 그 후 1970년대에는 부산미술이 조형 예술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1980년대에는 부산미술을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재인식하고 1980년대 후반에는 형상미술이 뿌리내려 우리들만의 뛰어난 미술문화를 일구려는 젊은이들의 의지에 의해 부산미술을 정립하게 하였다.⁴⁹⁾ 지역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봄으로써 부산미술의 거대한 모자이크를 그려보고자 하였고 이 전시는 부산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의 전체적 활동 상황을 조망함으로써 부산미술의 전모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1920년대의 어느 날, 한 사람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 부산미술이 80년이 지난 오늘,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부산 사람의 특징을 닮아 부산미술은 앞으로 수많은 도전과 변화 속에서 발전해 갈 것이다.

4. 경기도미술관

경기도미술관은 현대 미술작품의 수집과 소장품 상설전, 시의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미술의 생산과 소비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인접 분야와의 통섭, 국제교류를 도모하는 탈장르, 탈 지역 전시 및 프로그램으로 현대미술의 실험과 확장을 모색하여 하나의 지역성과 세계성을 아우르고, 대중성과 전문성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열자 이를 견제하고 조선미술의 근본적 개조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본의 관전인 문화성전람회(文展)와 제국미술전람회를 바탕으로 조선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P441
 49) 이용길, 부산미술사료,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6

경기도미술관은 수도권 일대의 풍부한 문화적, 경제적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경기도미술관 전시활동은 지역적 특색과 지역발전의 가능성이 묻어나는 예술과 생활, 작품과 관객, 지역과 세계를 연결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으로 경기미술프로젝트 연례전인 2007년《경기, 1번국도 전》, 2008년《언니가 돌아왔다. 전》, 2010년《경기도의 힘 전》이 개최되었다.

경기프로젝트 연례전 중 가장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2007년《경기, 1번국도 전》은 경기미술관 개관 1주년 기념전시이자 경기도의 정치, 사회, 문화 이슈를 화두로 삼는 동시에 지역적 특수성을 탈 지역주의로 승화시킴으로써 세계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기미술관의 핵심프로젝트 연례전의 첫 번째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한반도 문화 경제의 실크로드이자 경기도 근현대화의 길목으로서 문화지리학적 상징기표 또는 분단의 실체인 ‘1번국도’를 주제화하여, 경기도의 당대적 삶을 미술의 언어로 기록하고 이를 관람객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다. 즉, 1번 국도의 상징성과 경기도의 지역성을 결합한 《경기, 1번국도 전》은 시각예술의 상징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예술과 현실 또는 실재가 관계 맺는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는 전시이다. 경기프로젝트 연례전의 첫 번째 전시가 지역의 특정도로(구역)이 내포하는 다양한 의미와 역사성을 예술로서 승화시킨 전시였다면, 프로젝트의 두 번째 전시인 2008년《언니가 돌아왔다. 전》은 경기지역의 여류작가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변화하는 여성상과 21세기의 여성미술에 대한 시대 담론을 제시하였다.

경기프로젝트 전시인 위의 전시들은 미술관 전시 콘텐츠를 현장 프로젝트로부터 생산해내겠다는 계획과 명확한 주제의식 아래 강력한 큐레이터쉽에 의해 탄생되는 이 기획전시는 경기도미술관이 여타의 미술관들과 차별화를 두고 경기도 미술관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시이다.

<그림20>2007《경기 1번 국도 전》전시장 <그림21>2006《언니가 돌아왔다 전》전시장



제3절 청년작가 발굴을 위한 전시

1992년 광주시립미술관을 시작으로 90년대 중반이후 대전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이 설립되고 2000년대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전면 리모델링 후 재개관, 경남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등 지자체 공립미술관들의 개관, 실험적 대안적 미술을 수용하는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전시공간과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작가들 또한 미디어와 컴퓨터의 혁신적인 발전과 더불어 창작의 방법과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공립미술관들은 서로 앞 다투어 참신하고 개성 있는 기획전 개최와 청년작가의 발굴 및 육성이라는 대의명분 실천을 위해 청년작가들을 대거 입성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미술세계의 전반적인 변화는 청년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그들의 활동영역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작가들의 창작환경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네트워크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전시지원프로그램의 취지는 지원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만남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가와 기획자의 만남, 작가와 이론가, 작가와 작가의 만남 등 여러 만남들은 좋던 싫던 작가에게 많은 영향들을 가져다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청년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개최된 지역 공립미술관의 전시들을 조사해보았다.

1.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격년제로 진행되는 신진작가 전시 《SeMA 전》은 젊은 작가들이 현시대 미술계의 상업성과 유행에 휘둘려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진작가의 개인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한국미술 현상에서 떠오르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함과 더불어 동시대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조망해 본다는 취지로 2004년 처음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젊은작가 붐이 일어났다. 서울시립미술관의 《SeMA 전》은 이러한 미술계의 변화에 맞추어 시행된 기획전이라 볼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SeMA 2004》, 《SeMA, 2006》, 《SeMA, 2008》총 3번의 전시를 개최했고, 《육성이라는 대의 SeMA, 2010》은 2010년

12월 개최 예정이다. 2010년 12월 현재까지 진행된 《SeMA 전》의 전시주제를 살펴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표14> 《SeMA 전》 전시개요

SeMA 2004	
전시일정	2004.04.01 ~ 2004.05.09
전시주제 및 내용	디지털, fast, 인터넷, 개인주의 등으로 언급될 수 있는 현대 젊은이들의 대표적 문화를 젊은 작가들의 시각으로 읽어내며 동시대의 문화현상을 진단해 보자.
전시세부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게임 - 공룡의 트릭 • Replay - 이식(移植) • 키덜트(Kid + Adult) - 21세기 자화상 • 루키즘(Lookism) - 외모지상주의 • 아 ?? - 현실의 틈새 • 혼자놀이 - 섬 . 꿈 . 변신
참여작가	개인작가 : 27명, 그룹 : 2개(13명)
SeMA 2006	
전시일정	2006.09.13 ~ 2006.10.08
전시주제 및 내용	도시의 이방인 :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안에서의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 도시의 형태, 화려하고 발전지향적인 궁극적 미래보다는 그 이면에 보이는 현상들에 주목한다.
전시세부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글선샤인(Jungle Sunshine) • 아스팔트 키드(Asphalt Kid) • 무명씨들의 대화(An Anonym) • 멀미(Nausea) • 이탈(Deviation) - 꿈꾸는 사물들 • 내러티브 스피킹(Narrative Speaking)
참여작가	고영미 외 29명
SeMA 2008	
전시일정	2008.03.28 ~ 2008.06.15
전시주제 및 내용	오늘날의 미술이 더 이상 특정 미술사조의 흐름이나 유행의 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해진 바, '미술'이라는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되돌아가 생각해보자.
전시세부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과 색의 어울림 • 물로 쓴 슬로건 • 상상의 틈, 괴물되기 • 일상의 발견
참여작가	강연희 외 24명

《SeMA 전》은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이슈를

큰 주제로 삼고 큰 주제를 세분화한 소주제를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젊은 작가를 단순히 소개하는 형태의 전시에서 좀 더 구체성을 띠어 동시대 미술문화적 이슈를 함께 조망해 본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eMA 전》에 참여하는 젊은 작가들은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탐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독창적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화시키면서 새로운 미술경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작가들이다. 단지,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는 젊은 작가들을 소개한다는 형식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동시대의 문화 속에서 자신과 사회의 내면을 바라보며, 그것을 자신의 시각으로 읽어내고 창작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새롭게 생산해내고 있는 미술경향을 함께 조망해보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 모든 문화는 그 시대적 산물이며, 동시대적 맥락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SeMA》展에 참여한 젊은 작가들은 동시대의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고 작가 자신의 독창적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화 시켜 새로운 미술경향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시각을 통해 사회문화적 현상을 바라보기만 할 뿐 이러한 새로운 미술의 언어로써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 내는 고찰은 부족한 듯 보여진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앞으로 젊은 작가들이 사회의 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심도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21세기의 시발점인 2000년부터 청년작가지원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논의하다가 미술관의 자장 기본사업인 전시사업으로 《하정웅 청년작가초대》展이 결정되었다. 하정웅 명예관장은 1992년 212점, 1999년 471점, 2003년 3차로 1,182점을 기증하였고, 2010년 올해 4차로 357점을 기증하였다. 1차 기증당시에는 조건이 없이 기증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차 기증당시 하정웅컬렉션의 특징인 불우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혹은 억울한 자들을 위한 기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열악한 여건에서 작업하는 청년작가들을 발굴 및 육성하는 취지의 공모전 즉 ‘하정웅 미술상’을 만들어 줄 것을 협약하였으나 미술관 제정상의 문제로 2001년 초 매년 《하정웅 청년작가초대》展을 개최하는 것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하였다.⁵⁰⁾ 즉, 《하정웅청년작가초대》展은

50) 김희량, 빛 2010을 개최하며-빛전의 약속, 그 역사와 의미, 빛 2010 하정웅청년작가 10주년 기념도록, 2010, P24

하정웅선생이 광주시립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개최된 것이다. 하정웅선생의 작품기증 시 기증자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장을 마련하고, 꾸준히 미술탐구를 해온 실험성이 강한 작가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전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청년작가 육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술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을 기획의도로 하고 있다.⁵¹⁾ 2001년 《제1회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빛, 2002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빛, 2003》,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빛, 2004》, 《제5회,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빛, 2005》,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빛, 2006》, 《제7회,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빛, 2007》, 《빛, 2008,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빛, 2009》, 하정웅 청년작가展 10주년 기념전시《빛, 2010》展 총 10회의 전시가 개최되었다.

총 10회의 전시 중 의미가 깊고 가장 최근에 개최되었던 청년작가 전시 10주년 기념 전시《빛, 2010 전》은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빛 전》 1회에서 9회까지 출품한 작가들을 모두 초대하여 현재 작업 성과와 전시의 의미를 살펴보고 새로운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빛 전》을 준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9년 동안 배출한 47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빛2010 전》은 한국 현대미술의 집합체 또는 한국미술 현장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빛2010’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하고 청년작가들의 고민과 한국미술의 나아갈 방향성 등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 《빛2010 전》 작가들이 한국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밝히는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계기가 될 것이다. 참여 작가들의 연령대가 30~40대를 유지하고 여전히 현대미술의 흐름 안에서 청년정신을 실천하고 있다는 공통점에 따라 현대미술의 큰 흐름이 되는 네 가지 주제를 설정하고, 그 경향별로 작가를 구분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표15> 전시주제 및 참여 작가

	대 주제	소 주제	참여작가
주제 1	개념주의 전통		복기형 외, 13명
주제 2	팝아트의 전통		이이남 외, 9명
주제 3	타자에 의한 예술	-페미니즘 -후기 자본주의 사회비판	방정아 외, 13명

51) 홍혜정, 지역시립미술관의 전시기획 전략: 대구시립미술관 건립계획에 있어 전시기획을 위한 제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P27

		-환경문제	
주제 4	세기말적 미술	-오리엔탈리즘 -허무주의, 퇴폐주의 -복고주의	박수만 외 , 11명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빛》展이 2010년 올해로 10년째 맞이하면서 여러 성과가 있는 반면 해결해야 할 문제 또 한 가지고 있다. 이 전시의 시작은 젊은 작가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전방향과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작가선정 방식에 대한 검토, 매해마다 신선하고 특색 있는 기획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특정장르나 특정 주제를 선정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3. 부산시립미술관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전》은 부산시립미술관이 젊은(신인)작가들에게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출범하여 부산미술을 이끌 청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된 연례전시이다.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전》의 작가선정은 학예연구실의 추천을 통해 진행되며, 젊은 작가 지원 성격이 간한 만큼 작가 추천의 기준은 개인전 1회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부산, 경남권의 만 35세 이하 작가들로 한정한다. 1999년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기획되어져 왔고 2007년부터는 격년으로 개최되어 2009년 열 번째 전시를 맞이했다. 최근 1~2년 사이의 참신한 작품으로 활동한 작가를 선정하여 집중 조명함으로써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의지를 북돋고 관람객에게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는 장이 되고자 하였다. 그래서 작가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 신념을 격려하는 일은 미술관이 젊은 작가들에게 해야 하는 역할이다.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展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기획전의 형태이기 보다는 선정된 작가들 고유의 양식과 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 영상설치, 사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가 특유의 신세대적 사유와 감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展은 10명 이상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한 타 지역 공립미술관의 청년작가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와는 다르게 3

명~4명 정도의 젊은 작가를 선정하여 작가 각각마다 자신의 작업형태와 주제에 따라 마치 개인전과 같은 형태로 전시를 진행하므로 미술관 자체에서 주제를 정하는 다른 국립미술관 전시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인다.

총 열 번째 전시 중 가장 최근 전시되었던《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09 전》에 선정된 작가는 김대홍, 김지문, 박성란 이다. 김대홍 작가의 작품은 관객이 직접 몸으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기묘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좁은 통로를 기어서 들어가야 하고 물건들이 거꾸로 달려 있기도 한 이 공간은 혼자 은둔하기 위한 집이기도 하고 놀이동산과 같은 작은 스릴을 유발하는 곳이기도 하다. 김지문은 세계지도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얼핏 객관적으로 보이는 질서가 실은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에 의해 밀고 당기는 치열한 자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벽면을 덮은 커다란 꽃을 묘사하고 있는 박성란의 작품은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면 고철과 폐물로 만들어져 있다. 현대 사회의 잉여물에서 아름다움을 뽑아내는 독특한 시각이 엿보인다. 전시를 살펴보면 3명의 작가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른 작업을 하였지만 공통적으로 사회 외부의 압력과 권력에서 벗어 날 수 없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무력함 그 속에서 소외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 등 사회의 이슈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이를 놓고 볼 때 선정된 작가들은 현대미술의 한 가운데 와 있으며, 이 전시를 통해 더 완성된 작품 활동을 기대하게 한다.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展은 전혀 몰랐던 인물을 발굴하는 전시는 아니다. 그렇다고 탄탄한 작품세계를 가지고 있는 경력이 화려한 작가의 전시 또한 아니다. 아주 우수한 작가를 선정 했다고 보다는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작가를 선정한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작가들은 자신만의 발언과 그것을 예술언어로 해석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부산에선 사인화랑, 다다갤러리, 엘사갤러리, 엠태익갤러리 등에서 주최 측의 형편이 되는 한 20여 년 전부터 신진작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걸고 있다.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했던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은 꾸준히 계속되어왔다. 어떤 연례 전시가 10년간 지속됐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공공미술관이 이제 갖 개인전을 치렀거나 작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이런 형식의 전시를 꾸준히 해왔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부산에선 사인화랑,

다다갤러리, 엘사갤러리, 엠태익갤러리 등에서 도 젊은 작가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있어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의 공공미술관으로써 상업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립갤러리와 가장 큰 차이점인 공공성에 있어서 새로운 젊은 작가의 발굴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단지 전시의 장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미술관 운영에 한계와 부산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선발작가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4절 대형국제전(비엔날레)

1995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축제는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 지역민, 타 지역의 국내인 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국가의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공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및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 인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술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대형국제전으로는 격년제로 열리는 비엔날레(biennale)를 들 수 있다. 비엔날레(biennale)는 세계의 예술을 한자리에 모아 구가간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현재 현대미술의 동향과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절에서는 국제적 규모의 비엔날레인 《서울미디어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를 사례로 하여 소개하려 한다.

1.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시티 서울》

미디어_시티 서울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미디어_시티 서울》은 2000년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아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디어 종합 축제이다.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현대 예술의 결합 가능성을 탐구하고 제시하는 전시행사로, 크로스 아트wf.f로 평가 받고 있는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선보이고자 한다. 《미디어_시티 서울

»은 비엔날레 형태의 행사로 2년마다 새로운 시각예술작품을 소개하고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예술적 상상력을 선보임으로써 다양한 영역간의 경계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더 새로운 문화를 향한 디딤돌을 제공하여 서울시가 세계 속 IT와 디지털 문화의 허브로 자리매김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⁵²⁾

《미디어_시티 서울》은 2000년을 시작으로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현재까지 총 6회 개최 되었다. 1회《미디어_시티 서울》은 2002년부터 2회부터 《서울 국제미디어 아트비엔날레》로 공식명칭이 바뀌었고, 2008년 5회까지는 같은 명칭을 사용하다가 2010년에 열린 6회에는 미디어와 시티 사이의 ‘_’없이 1회 명칭인 《미디어 시티 서울》로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개최된 《미디어시티 서울》의 주제와 행사개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6> 서울 국제 미디어비엔날레 개요

	주 제	기 간	장 소	학술행사	참여작가
제1회	도시:0과1사이	2000.9.2 ~ 11.5(65일간)	서울시립미술관 지하철역13개소	심포지움	19개국 121명 작품 161점
제2회	달빛 흐름	2002.9.26 ~ 11.24(59일간)	서울시립미술관 정동주변 일대	심포지움	21개국 13명 작품 200점
제3회	디지털시대 놓이하는 인간 디지털호모루덴스	2004.9.16 ~ 11.25(70일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일대	심포지움	18개국 80명 작품 80점
제4회	두 개의 현실	2006.10.2 ~ 11.27(56일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일대	심포지움 워크숍	18개국 78명 작품 81점
제5회	전환과 확장	2008.9.12 ~ 11.5(55일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일대	심포지움 워크숍	26개국 70팀 작품 77점
제6회	Trust	2010.9.7~11.17(70일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심슨기념관	심포지움 워크숍	21개국 45팀 작품 60점

2010년 현재까지 개최된 총 6개의 비엔날레 중 가장 최근 개최된 2010년 제 6회 《미디어시티 서울》을 살펴보겠다.

2010년으로 10주년을 맞는 6회 《미디어시티 서울》에서의 주제는 신뢰: 트러스트

52) <http://mediacityseoul.or.kr>

(Trust)로 좀 더 광범위한 의미의 미디어, 즉 인문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미디어가 현대인들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 살펴보고, 이전의 《미디어_시티 서울》 혹은 《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미디어아트 자체보다는 미디어의 다양한 모습과 그것을 제시하는 삶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이념을 시사 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미디어의 기술적이고 학구적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지도 않았다. 그보다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폭넓은 의미를 좀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좀 더 개인적인 시각에서 현대사회의 트라우마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미디어시티 서울》은 서울시립미술관 본관과 경희궁 분관, 서울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이화여고 심슨기념관까지 전시가 확장되어 개최되는 이번 《미디어시티 서울》은 총 21개국에서 젊고 유망한 작가 45개 팀을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미디어가 확장되면서 광고는 일상이 됐고, 집단화됐으며, 대중주의는 민주주의를 대치하고 있다. 오늘날 신뢰나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단어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미디어아트를 현대 미술의 한 부분으로서 바라보고, 미디어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는 것이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더 이상 예술은 캔버스 위에만 펼쳐지지 않는다. 이번 전시는 움직이는 영상들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시 가이드북과 오디오 가이드가 무료로 제공하여 서서 눈으로만 전시를 관람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미디어시티 서울》에 참가한 미디어아트 작가들은 인쇄물, 도시 폐기물, 사진과 비디오의 기술, 다큐멘터리와 픽션 등 다양한 형식을 작품에 활용하였다. 작가들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폭넓은 의미를 제안하면서, 관객에게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미디어시티서울은 국내 비엔날레 행사로서는 최초로 페이스 북과 트위터를 활용하면서 관객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하였고, 전시 도록과 리플렛, 오디오가이드 등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 누구나 전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미디어시티 서울》은 유희적인 전시 내용 이외에도 디지털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모순 및 오늘날의 추세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각각의 전시와 작품들로 하여금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향후 문화와 예술의 주역이 될 현 미디어 세대들을 타깃으로 다양한 부대 행사와 이벤트를 기획하고 구비함으로

써 청년층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으며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시티 서울》은 서울시의 관료주의적 운영방식에 묻혀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하며, 전시행사 기간에 구성되었던 조직위원회가 2007년부터 철회됨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자문으로만 진행되어 비엔날레라는 명칭으로의 전환에 대한 내적 필연성이 부족하고 미술관 성격과 관련한 행사운영 원칙이 부족하다는 비평을 받고 있다.

《미디어시티 서울》의 예산은 1회 때에는 약 100억 원으로 확정되었던 예산이 2002년 95% 하락한 5억 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3회 때에는 9억 8천만 원, 4회에는 11억 9천만 원까지 증가하였지만 회를 거듭해도 초기의 예산에는 미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전시의 규모와 운영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자체 내에서 인지되는 비엔날레의 중요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³⁾ 또한 전시회의 테마와 컨셉을 정확히 선정하여 진행하여 전시의 특성화를 구축하려 노력하였으나 비엔날레 개최 초기에 대두되었던 난해한 구성과 이해의 어려움의 문제는 《미디어시티 서울 2010》에서도 해소되지 못하여 일반 대중이 공감하기보다는 매니아 층만이 공감하는 비엔날레가 되어버렸다. 서울《미디어시티 서울》은 타 비엔날레에 비해 관람료가 저렴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을 전시장으로 유도하였으며, 2010년 현재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획되는 전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미디어시티 서울》은 입장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상업 활동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어 있다.

2.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는 1993년 5월 13일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담화”를 통해 도청 이전 결정이 발표되고 상무신도심에 5.18기념공원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검토되었다.⁵⁴⁾ 지역민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적 고통을 문화·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광주정신을 보편화, 전국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했던 광주시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술의 창달을 통해 새로운 광주로 거듭나기 위하여 현대미술을 매개로 한 소통의 장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고, 문화 예술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1세기를 향한 세기적 전환기에 이루어진 《광주비엔날레》의 태동은 독특한 자연관과 세계관을 가진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온 광주에 뿌리 내림하는 첫 걸음이었다.

53) 주연실, 광주비엔날레의 전개과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8

54) 유영국, 2002, 광주비엔날레와 지역경제, P33~34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시작하여 1990년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세계화라는 과제를 안고 대규모 국가적 지원을 받으면서 1995년 출범하였다.

1회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된 1995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임과 더불어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 미술의 해였다.

광주는 이러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상황에서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 중 하나인 “예향”이 갖는 장점을 살려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하였다. 창설 목적은 “세기말 역사의 굽이에서 광주 비엔날레는 새로운 예술의 질서를 위해서 닳을 올린다. 광주, 한국, 그리고 세계사의 왜곡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예술의 신명나는 한마당을 위하여 그 기수를 열린 세계로 올리려 한다. 이와 함께 분단의 한국사를 극복하고 분절된 세계사를 예술로 밝히는 빛고을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 창조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광주비엔날레》 선언문에서 밝혔다.⁵⁵⁾

1995년부터 개최된 《광주비엔날레》는 1997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까지 총 8회 개최되었다. 각각의 비엔날레의 주제 및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7> 광주비엔날레 개요

	주 제	기 간	장 소	참여작가
제1회	경계를 넘어	1995.9.20~11.20 (61일간)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50개국, 92명 작가참여
제2회	지구의 여백	1997.9.1~11.27 (58일간)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32개국, 117명 작가참여 (본전시) 257명 작가(5개 특별전)
제3회	인 + 간	2000.3.29~6.7 (69일간)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46개국, 235명 작가참여(본전시)
제4회	멈춤, PAUSE, 止	2002.3.29~6.29 (92일간)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31개국, 325명 작가참여 (4개 프로젝트)
제5회	먼지한톨, 물한방울	2004.9.10~11.13 (44일간)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41개국, 237명 작가참여 (본전시1+ 현장전)
제6회	열풍변주곡 Fever Variations	2006.9.8~11.11 (72일간)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32개국, 127명 작가참여
제7회	연례보고 : 일년동안의 전시	2008.9.5~11.9 (66일간)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36개국, 127명 작가참여

55) 제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제1회 광주비엔날레 결과보고서, 1995, P32~33

제8회	만인보(滿人譜/ 10,000 Lives)	2010.9.3~11.7 (34일간)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시립민속박물관 양동시장	31개국, 134명 작가참여
-----	---------------------------	-------------------------	---------------------------------------	-----------------

1995년 제1회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까지 진행된 제8회의 비엔날레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제8회 광주비엔날레를 살펴보겠다.

제8회 광주비엔날레의 전시의 제목(만인보)은 고은 시인의 30권에 이르는 서사시 ‘만인보(10,000 Lives)’를 차용하였다. 전시 기본 방향은 각 시대와 역사, 세대, 자신, 삶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으로서 작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끊임없이 이미지를 만들고, 확대, 재생산, 조작, 순환, 교환, 소통되는 이미지의 일상과 우리시대 이미지의 집착에 대한 사회문화적 반추와 미학적 담론을 펼치고, 인간에서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인간으로 상호 결속된 인간과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면서, 현대미술 작품과 다양한 문화적 산물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형상과 아이콘, 얼굴, 이미지, 우상, 인형 등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임시 박물관과 같은 형태를 이루도록 하였다.

참여 작품은 지난 1901년부터 올해까지 활동한 31개국 134명의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되며,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신작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전시는 많은 예술작품들과 문화 창작품들로 구성되어 전시 자체가 전시방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임시 박물관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전시장 안에서는 다양한 인물들과 상징물들, 얼굴들과 가면들, 우상들과 인형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기묘한 전시목록을 구성하였다.

각 전시 공간은 소주제, 섹션 등의 구분을 두지 않고 단일전시로 통합시키고, 모든 작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 조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적 현대미술 교류 및 소통의 장, 개최지의 미술전통과 삶의 역사와 현대를 연결시키는 비엔날레관과 광주시립미술관, 민속박물관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작품을 배치하고, 주 행사장소인 중외공원 외에 개최지의 도시문화, 삶의 현장과 직접적인 소통의 연결을 위해 전시성격에 부합하는 별도의 사이트를 구성하였다.

<표18> 2010년 제8회 광주비엔날레전시 장소와 이미지배치

전시장소		전시내용(이미지 내용)
비엔날레관	1전시실	이미지의 창조, 이미지의 제시, 사진
	2전시실	이미지 구성, 일루전
	3전시실	기억의 공간, 기념, 생존으로서의 이미지
	4전시실	은유대상의 이미지
	5전시실	기억의 이미지
광주시립미술관		자화상과 자기재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역사와 기연
양동시장		시민참여 이미지와 소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비엔날레인 만큼 국내외 여론의 객관적이고 비평적인 평가 속에서 광주비엔날레는 정책과제로서 국제화라는 세계적인 구조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음과 동시에 지역의 경제를 확대하고 세계 속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시키는데 정진하고자 주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적인 효과로서 광주비엔날레는 오늘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현상을 반영하는 현대미술의 모습을 통해 동시대인들의 가치관과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국제적 이해와 시대상황의 인식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문화를 극대화 시켜 국민의식을 세계화, 국제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에서 제3세계 미술 현장을 서구 패권주의적 현장에 개입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주요 비엔날레이자 아시아권에서 가장 오래된 비엔날레로 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 위상과 그간의 노하우야말로 여타 아시아권 비엔날레와 차별되는 광주비엔날레의 중요한 장점이다. 그러나 미술적으로 충실하고 의미 있는 행사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사 접근 방식에서 좀 더 품위와 신중함이 요구되어야 한다.

3.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는 1998년 부산시립미술관 개관을 계기로 시행하게 되었다. 부산에서는 원래 1981년 부산청년비엔날레가 지정돼 2년마다 개최되어 왔고 청년비엔날레가 4회를 맞은 1987년 바다미술제가 제정돼 해마다 행사를 열었다. 별도로 개최되었던 이 두

행사를 청년비엔날레가 다섯 번째 행사를 한 해 늦추면서 1990년에 4회 바다미술제와 함께 열리게 되었다. 1991년에는 부산야외조각대전이라는 제3의 행사가 조직돼 이때부터 부산에서는 청년비엔날레, 바다미술제, 야외조각대전이라는 세 개의 미술행사가 함께 또는 별도로 개최되면서 부산의 문화예술 지형을 형성해 나갔다. 1998년 위의 세 개 행사는 '98,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로 융합되어 '새천년의 빛 - 동방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부산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운대해수욕장과 아시아드조각광장 등에서 개최되었다. 이듬해에 (사)부산아트페스티벌이 개최되었으며, 2001년에 지 조직의 정기총회에 행사 이름을 부산비엔날레로 바꾸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2년 오늘과 같은 부산비엔날레 첫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현재까지 2000년 비엔날레의 형태를 띤 부산아트페스티벌을 포함하여 총6번의 행사를 개최하였다.⁵⁶⁾ 개최행사의 주제 및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9> 부산비엔날레 개요

	주 제	기 간	장 소	참여작가
2000 부산국제 아트페스티벌	波-함께 하는 삶	2000.10.2~11.27 (56일간)	부산시립미술관 해운대해수욕장 올림픽공원	37개국, 334명의 작가 참가
2002 부산비엔날레	문화에서 문화로	2002.9.15~11.22 (69일간)	부산시립미술관 해운대해수욕장 아시아드조각광장	40개국, 227명의 작가 참가
2004 부산비엔날레	틈	2004.5.22~10.31 (163일간)	부산시립미술관 해운대해수욕장 울속도조각공원	40개국, 203명의 작가 참가
2006 부산비엔날레	어디서나	2006.9.16~11.25 (71일간)	부산시립미술관 해운대해수욕장 APEC나루공원	39개국
2008 부산비엔날레	낭비	2008.9.6~11.15 (71일간)	부산시립미술관 광안리해수욕장 APEC나루공원	39개국, 189명(팀)의 작가 참여
2010 부산비엔날레	진화속의 삶	2010.9.11~11.20	부산시립미술관 요트경기장 광안리해수욕장 부산문화회관 부사시청전시실	23개국, 72명의 작가 참가

56) 하계훈, 아시아 4대 비엔날레의 한축을 위한 방향성, 월간미술, 2008.10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총 6번의 비엔날레 중 가장 최근 개최된 2010《비엔날레》를 살펴보겠다. 이번 비엔날레는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전시의 통일성과 기획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3개의 전시를 통합하고, 전시규모에 있어서 작품 수보다는 작품 수준과 완성도를 더욱 확보하여 생산자 중심이 아닌 수용자 중심의 전시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이 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본 비엔날레가 추구해온 대중성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였다.

《2010, 부산비엔날레》의 테마는 인생과 인류의 발전 이라고 하는 우리들 인간이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의 거역할 수 없는 시간의 축을 의식하면서 예술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진화속의 삶(Living Evolution)’이라 정하였다. 회화, 음악, 영화, 연극, 춤 등의 여러 가지 예술은 그것을 감상하는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사람들의 인생은 예술로 인해 더욱 VD진다. 그러나 예술의 역할은 그 시대의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예술은 그 시대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성을 인간에게 안겨주며, 때로는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인류에 새로운 가치초간을 제공한다. 작가의 입장에서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그 이상의 기쁨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작품이 인류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제공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예술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일 것이다. 그것은 예술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통된다 할 수 있다.

그리하여 《2010, 부산비엔날레》는 현대미술 그 자체를 작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생으로부터 탄생한 것으로 보는 동시에 인류의 발전에 공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다루었다.⁵⁷⁾

본 전시의 진행 및 구성 방향은 과거에 3개로 개최되었던 전시를 하나의 주제 하에 실내, 외 전시로 통합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는 동시에 3개 전시의 역사와 목적을 고려한 다각적인 특성을 지닌 전시를 기본 방향으로 진행하여 ‘바다’를 중심으로 ‘바다’와 함께 발전해온 항구도시 부산이라는 지역성에 기반 하여 타문화와의 소통을 촉진시키고 바다가 상징하는 생명감과 장대한 시간을 중심으로 생물학적 의미의 진화뿐만 아니라 지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인류 및 도시의 진화 그리고 그 진화 속에서의 개인의 존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전시는 전시주제를 적절하게 표현한 작품 중 ‘그 장소에 있음으로써 감동을 전하는’ 장소 특정적인 작품으로 구성하여, 부산시립미술관,

57) 부산비엔날레 <http://2010.bussanbiennale.org>

요트경기장, 광안리해수욕장, 부산시역內에서 진행되었다.

<표20> 2010, 부산비엔날레 전시장소 및 전시내용

전시장소	전시내용(이미지 내용)
부산시립미술관	-자연 속에서의 개인의 삶과 도시공간속에서의 개인의 삶을 조명 -도시와 인간의 변용, 사회시스템 하에서의 삶, 과학과 논리, 인류의 기억/역사, 문화, 경제의 진화, 이상적 신체 등을 소주제로 각 주제를 조명하는 작품 전시
요트경기장 계측실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실내라는 구조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작품 전시 -영상 및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끝없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되풀이되는 삶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작품을 전시
광안리해수욕장	-‘생명감’과 ‘장대한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상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바다와 함께 대비적 양상을 띠는 작품들로 구상
실외조각 (해운대 포토존, 어린이 대공원 등)	-기존의 조각프로젝트 진행방식에서 벗어나 부산시역內 주요장소에 기념비적 작품 설치 -도시환경의 변천과 인간존재를 다른 작품으로 구성

부산시청 전시실, 부산문화회관, 금련산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특별전《Now Asian Artist》는 아시아 3개국인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현대미술과 극사실주의 작가 작품들을 전시하여 아시아 현대미술의 현 주소를 이해하고 작가들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현대미술의 한 조류를 집중조명하여 난해한 현대미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된 특별전시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각각의 전시에 따라 전시기간이 다르게 진행되었다.

연계전시로는 갤러리 페스티벌, 대안공간 전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계전시인 갤러리 페스티벌은 시내에 있는 참여 화랑 및 예술 공간에서 부산비엔날레 출품작가 또는 부산작가의 작품세계를 집중 리뷰 할 수 있는 전시로 총 26개의 화랑이 참여하여 다양한 전시를 선보였다. 두 번째 연계전시는 갤러리와는 또 다른 형태의 전시관인 대안공간과의 연계전시를 통해 지역의 발전가능성 있는 신인작가를 집중조명하고 발굴

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오픈스페이스 배,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2010 문전성시 프로젝트 - 시장통비엔날레 등 세 개의 대안공간에서 각각의 기획방향을 가지고 전시가 진행되었다.

‘오픈스페이스 배’에서는《Interational Artise-in-Residence, OPEN TO YOU》展을 통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작가의 창작공간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전국의 예술가와 비평가들의 정보교환의 장 및 전체행사를 영상기록 . 배포하여 전시의 의의를 고취시키고자하였다. 오픈스튜디오, 야외전시, 워크숍, 아카이브 프로젝트등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에서는《본능의 진화(Evolution of Instinct)전》을 통해 인간 존재의 생물학적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예술적 직관을 염두에 두면서 재해석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전시하고, 작가의 작품설명회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와 작가와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열리공간을 마련하였다.

국제적으로 수많은 비엔날레가 성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산비엔날레》는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이자 물류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타의 도시에 견줘 비엔날레라는 국제 미술행사를 치르는 데 상당한 강점이 있다. 특히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바다미술제와 작품의 영구설치를 통해 부산을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는 부산조각프로젝트 등 부산시민이 가지는 전시의 독특함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엔날레 본연의 임무이다. 항상 새로운 이슈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과 전시 구성 등을 종합적일 보이는 것이 부산비엔날레의 차별화 된 전시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힘이다. 부산은 일찍이 미술인들의 자발적인 운영으로 각종 문화행사와 더불어 부산시민들의 부산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비엔날레》는 단지 비엔날레 형식의 미술행사로 부산비엔날레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미술문화에 대한 질 높은 행사가 되 위해서 나아가야 하며, 나아가 부산 미술 발전과 지역경제, 한국의 미술문화에도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절 소장 작품 전시

소장품은 전통적 의미로서의 미술관 존립의 근거가 된다.⁵⁸⁾ 그러나 소장품의 유 . 무

58) 전통적 의미의 미술관과는 달리 소장품 없는 미술관 형태의 문화시설이 존재한다. 가령 프랑스 파리의 <갤러리 나오시날 주 드 폼프(Galerie nationale de jeu de Paume)>나 독일의 <쿠스트할레(Kunsthalle)> 등이 그것이다. 이들 문화시설은 소장품 없이 전시와 교육 사업을 주로 하는 신개념의 미술관이라 할 수 있다.

에 따라 미술관의 존립을 결정지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미술관의 가장 큰 특징은 선 전시, 후 소장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전시와 소장의 순서에 변화가 있지만 미술관의 소장 작품은 여전히 미술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현대미술관의 전시는 과거의 작품을 가지고 전시하기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미술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전시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획전시 하나하나가 바로 현대미술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에 있어 미술관의 소장품은 현대미술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실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공립미술관들은 소장품 수집에 있어 미술관 설립목적에 따른 제도의 수립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5절에서는 미술관의 특징과 현대미술의 흐름을 관람객에게 정립시키는 미술관 별 소장품전시를 살펴보았다.

1.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은 1930년대 부산미술의 여명기에서부터 1970년대까지 미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미술관 특화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술관의 소장품 수집방향은 각 장르별 미술작품과 자료 수집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현대미술 및 부산과 영남권 미술을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⁵⁹⁾ 부산시립미술관의 작품 수집절차는 2006년 변경된 미술관소장품정책에 따라 전국공모를 통해 작품매도신청을 받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작품추진위원회에서 매도신청 작품을 1차로 심의한 후 작품 구입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구입된 소장품을 중심으로 부산시립미술관은 《2002 신규소장품 전》, 《2002 신 소장품 전 : 먹으로 그려낸 풍경들》, 2003년 《한국현대미술의 단면 : 1971~2001 전》, 《신 소장품 2002 전》, 《소장품 전 - 부산미술 1세대》, 《2004 소장품 전》, 《2003 신 소장품 전》, 《2004 소장 판화 전》, 2005 소장품 기획상설전시 《반응과 인식 : Response & Recognition 전》, 2005 소장품 기획상설전시 《부산의 미술작가들 1 전》, 2005 소장품 특별전시 《정신적 풍경 : Aspiritual Landscape》, 2005년 소장품특별전시 《나는 누구인가 : Who Am I 전》, 2005 소장품특별전시 《경계에 서서 : Standing on the edge 전》, 2005 소장품특별전시 《장자의 꿈 : The Dream of Changtzu 전》, 《2006 소장품 전 - 배열, 결합, 조립, 구축》, 《2006 소장

59) 「2006년 미술관소식지」, 부산시립미술관, <http://art.busan.go.kr>

품 전 - 공간과 매체》, 《2006 신 소장품 전》, 《2007 신 소장품 전》, 2008 소장작품 기획전시 《풍경소리를 듣다. 전》, 2008년 소장 작품 기획전시 《풍경 전》, 《2008 신 소장품 전》, 《2009 신 소장품 전》 등 다양한 소장품전시를 매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소장전시의 주된 목적은 미술관이 수집한 소장 작품의 공개에 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기간별 구입소장품을 중심으로 전시되는 신 소장전과 전시의 기획의도 따라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되는 소장품 특별전이 있다. 신 소장전은 해당 연도에 구입 및 증된 모든 작품들이 선보이기 때문에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예산의 투명성을 작품선정의 전문성을 엿 볼 수 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되고 전시의 주제는 소장품 수집 당시의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반면, 소장품 특별전시는 2005 소장품 특별전시 《정신적 풍경 : Aspiritual Landscape》, 2005년 소장품특별전시 《나는 누구인가 : Who Am I 전》, 2005 소장품특별전시 《경계에 서서 : Standing on the edge 전》, 2005 소장품특별전시 《장자의 꿈 : The Dream of Changtzu 전》, 《2006 소장품 전 - 배열, 결합, 조립, 구축》, 《2006 소장품 전 - 공간과 매체》 등과 같이 전시 기획의 의도와 주제에 따라 작품이 선정되어 전시되기 때문에 부산시립미술관의 특징을 정립시키고, 관람객에게 부산미술의 특징적인 부분을 조명하여 보일 수 있다.

2. 경남도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은 철저한 자료수집 및 정리, 과학적 보존관리, 조사연구 활동을 하게 되며 다양한 기획전시 및 국제 교류행사 등을 통해 소장품의 가치를 사회에 부각시키며 나아가 이와 함께 각 시대의 문화와 사회정서 등 문화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작품수집 계획을 수행하려 한다.⁶⁰⁾ 경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종에 의거 소장품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세부계획을 세워 조사, 연구, 수집하고 그 현황을 구입별, 경위별, 연대별, 부분별로 파악하고 있다.⁶¹⁾ 경남도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방향은 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미술사적 가치,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 경남미술사 정립을 위한 작품, 지역미술의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상설전시를 위한 작품, 다양한 테마별 기획전시를 위한 분야별 작품, 경남미술의 대외적 위상을 위한 작품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다.

60) 한주원, 국내 국.공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정책 연구, 국민대학교, 2008

61) 「2007년 경남도립미술관 수집계획안」 참고

경남도립미술관은 소장품 수집 방향에 따라 수집된 소장품을 중심으로 2004년 《소장품 전》, 2004년 《판화 소장품 전》, 2005년 《신옥진 기증작품 전》, 2005년 《신 소장품 전》, 2007년 《신 소장품 전》, 2008년 《신 소장품 전》, 2009년 《기증작품 전 I 내면의 선 - 드로잉》, 2009년 《기증작품 전Ⅱ- 누름과 찍힘》, 2009년 《기증작품 전Ⅲ - 무제, 명제가 없다?》, 2009년 《신 소장품 전》 등 총 10개의 전시가 진행되었으며 전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전시 방향의 첫 번째는 수집에 의해 소장된 작품을 중심으로 기획된 《신 소장품 전》, 두 번째는 기증에 의해 소장된 작품을 중심으로 기획된 《기증작품 전》이다. 《신 소장품 전》은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하는 반면 《기증작품 전》은 작품의 장르 및 주제를 선정한 후 새롭게 재해석하고 기획의도에 따라 특징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전시가 진행되므로 《신 소장품 전》 보다는 작가의 창작의지 및 전시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소개하고 관람을 이해시킨다.

3. 전북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의 한국현대미술사에서의 주요한 사조, 운동, 경향에 영향을 끼친 한국미술사의 맥락을 살펴 볼 수 있는 주요 작품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또한 전북지역의 근현대 작고작가 및 원로, 중견, 청년작가의 작품과 해외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주요 작품을 대상으로 수집하고 있다.

소장품 수집은 서화미술의 역사가 깊은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여 서화, 서예 등 전통성에 바탕을 둔 근대미술품과 그 전통을 전승한 현대미술품의 수집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적,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컬렉션의 형성에 힘써오고 있다. 전북도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방향은 미술의 정체성 추구, 미술의 보편화 추구, 환경미술품 설치, 대중 참여형 작품수집으로 타 미술관에 비해 비교적 세분화되어있다.

지역문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작품 수집을 진행하는 전북도립미술관은 《2005 소장작품 전》, 《2006 신 소장작품 전》, 《2007 신 소장작품 전》, 《2008 소장작품 전》, 《2008 신철균 기증작품 전》, 《2008 세계서예비엔날레 기증작품 전》, 《2008 신 소장작품 전》, 《2009 하정웅 기증작품 - 손유아 전》, 《2009 아라재 소장명품전 - 보문》, 《2009 신 소장전》 등 총 10번의 소장작품 전시를 개최하였다.

전북도립미술관의 소장작품 전시는 《신 소장작품 전》, 《기증작품 전》 두가지 형태로 진행되며, 이 중 가장 특징적인 전시는 《2009 아라재 소장명품전 - 보문》이다. 이 전시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서화의 역사가 깊은 지역의 특징을 잘 반영한 전시이다. 전시의 구성은 조선시대의 전기, 중기, 후기의 각 시대별 작가와 작품으로 구분하여 조선시대미술의 흐름과 경향을 파악 하도록 하였고, 산수, 사군자, 인물, 화조, 영모, 풍속화, 서예, 서화, 시, 간찰, 민화 등을 망라하고 백자, 분청 등의 도자를 함께 전시하여 조선시대 미술의 다양하 면모를 소개하였다. 전시를 통하여 전북도립미술관은 조선문화의 최절정 문예부흥기의 걸작들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서화미술의 정수를 체감하게 하여 도립미술관의 주 컬렉션의 맥락과 의미와 가치를 널리 이해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북도립미술관은 구체적인 작품수집계획에 의해 작품을 수집하고, 그 특징에 부합되는 소장 작품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미술관의 특징을 잘 살린 전시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제6절 소 결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 주요 국공립미술관의 전시현황과 전시관별로 비교적 공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4가지의 전시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사례미술관들은 매년 약 15회의 전시를 개최하고 각각의 미술관 마다 전시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으나 지역을 대표하는 공립미술관인 만큼 지역의 특징 및 지역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미술 발전을 위해 프로젝트 형식의 청년작가를 새로이 발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전시 또한 연례전으로 개최되고 있다. 4절에서는 국제교류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시작연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0년 현재 사례로 조사했던 세 개의 비엔날레는 같은 연도에 함께 개최되고 있다.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만큼 각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차별화된 기획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5절에서는 미술관의 소장품 수집과 소장작품 전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술관 소장작품 전시는 공통적으로 《신 소장 작품 전》과 《기증 작품 전》으로 나뉘었으며, 대부분의 소장 작품 전시는 기간별로 수집된 작품

을 소개하는 형태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별다른 특징이 없는 전시가 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미술관 마다 수집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하여 소장 작품 전시 또한 미술관이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사례조사를 했기 때문에 유형자체가 테마가 되어 크게 특징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전시의 구성 또는 진행에 있어서 각 미술관 별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미술관이 비슷한 형태와 구성으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 예술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공립미술관으로서 타 지역과 차별화를 주고, 특징을 살리기 위한 미술관만의 전시기획과 구성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4장의 전시사례를 중심으로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여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기획 및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5장.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 방향 제언

제1절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현황분석

제주지역 공립미술관은 2009년 기준 총4개의 미술관이 소재하고 있다. 4개의 공립미술관의 전시현황을 살펴보고 제주지역 공립미술관의 전시기획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다음은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현황이다. 전시 현황은 각 미술관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정리 하였다.

<표21>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개최 현황

서귀포 기당미술관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총계
기획전	3	3	5	3	3	4	4	4	4	4	5	42
상설전	2	2	2	2	2	2	2	2	2	2	2	22
대관전	3	3	.	.	1	5	7	4	2	2	5	32

서귀포 이중섭미술관 ⁶²⁾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총계
기획전	4	4	3	1	.	.	1	1	.	14
상설전	1	1	1	1	1	1	1	1	1	9

제주현대미술관 ⁶³⁾				
	2010	2009	2008	총 계
기획전	9	7	8	27
상설전	2	2	2	8

62) 출처 : <http://jslee.seogwipo.go.kr>

63) 출처 : <http://www.jejumuseum.go.kr>

제주도립미술관⁶⁴⁾

	2010	2009	총 계
기획전	8	6	14
상설전	1	1	2

(*2010년 전시 횟수는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한 횟수이다.)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기획전시의 횟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나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제2절 제주지역 공립 미술관 전시기획 방향 제언

1. 제주의 지역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 기본전시 기획 및 설정

지역미술관은 미술관만의 고유 전시방향과 테마를 선정하여 타 지역 미술관과 차별화된 전시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미술관의 고유한 전시방향은 미술관의 장기적인 발전과 그 지역 미술계의 가장 큰 이슈로서 지역미술문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전시는 앞의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서울시립미술관의 사회적 이슈와 서울의 특정지역의 역사를 크로싱하여 기획된 《배를 타고 가다가 - 한강 르네상스 서울 전》, 《2005 청계천을 거닐다 전》,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의 특징적인 역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을 통해 역사의 아픔과 교훈을 상기시키고 이를 재해석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타 지역 공립미술관들은 위에 언급한 형태의 전시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미술관을 지역의 특징에 맞게 특성화시키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공립미술관 또한 제주 지역만의 자연적 특징과 문화적 특징을 전시기획에 적극 접목시켜 제주지역 공립미술관만의 독자적인 전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64) 출처 : <http://jmoa.jeju.go.kr>

1) 제주의 환경과 문화의 과거, 현재를 중심테마로 선정한 전시 : 《삼다(三多), 삼무(三無) 전》(가칭)

제주는 예로부터 삼다(三多), 삼무(三無)의 섬이었다. ‘삼다(三多) 바람, 돌, 여자가 많다.’, ‘삼무(三無)는 도둑, 대문, 거지가 없다.’ 라는 단어는 제주의 환경과 문화의 특징을 함축시킨 단어이다. 이 단어가 과거의 삼다(三多)와 삼무(三無)였다면, 현재 제주의 새로운 이슈와 제주를 대표하는 아이콘을 삼다(三多)와 삼무(三無)에 대입하여 전시의 테마를 이끌어 나간다면 과거 제주의 특징을 이야기한 명칭의 사용으로 제주만의 특화된 미술관 전시라는 지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 섬이라는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문화가 많이 발달한 지역으로 지역민의 전통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지역 중 하나이다. 제주의 과거 사회 환경과 문화, 현재의 사회 환경과 문화를 중심 테마로 기획되는 《삼다(三多), 삼무(三無) 전》(가칭)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과거의 예술을 계승하는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전시와 현대의 이슈 또는 과거의 것을 재해석한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전시를 동시에 진행되도록 기획하여 제주 문화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에 두고 동, 서, 남, 북으로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선진 문명이 일찍 자리 잡은 지역, 전통이 사라진 지역, 지역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 등 다양한 지역이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모두 공존하듯이 제주지역의 공립미술관은 제주 문화예술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또 다른 제주도가 될 것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기본기획전시인 《삼다(三多), 삼무(三無) 전》(가칭)을 통해 과거와 현재라는 반대의 방향성에서 진행되는 전시를 통해 공통된 이슈를 만들어내고, 과거의 예술과 생활, 현재의 예술과 생활이 서로 접목되고 소통 할 것이고, 이러한 소통은 제주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2) 제주미술 정립전시

제주미술의 흐름은 지난 20세기 우리의 현대미술사의 흐름과 크게 다름없다. 중앙집권 체제하에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종속적 관계로부터 비롯한 외부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양식들은 제주미술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제주미술은 섬이라는 지리적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형식들이 공존했다는 점은 선진문화에 대해 매우 열려있는 제주인들의 태도와 해양문화를 접해온 메트로폴리탄적 감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점에서 제주근대미술의 태동은 육지보다는 일본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제주미술은 제도적으로 중앙문화에 종속적인 관계이지만 제주사람들에 의한 자발적이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⁶⁵⁾

제주 현대미술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서구미술 양식의 유입과 더불어 추상미술과 구상미술의 대립적 관계로부터, 80년대 민중미술로 대변되는 사실주의,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선언아래 기존의 형식미술과 더불어 사진, 미디어, 설치 등의 작품들이 실험되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제주미술은 다양한 양식들이 혼재된 상태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제주미술의 특징 아닌 특징일 것이다. 여러 양식들의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점은 자연물상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제주가 가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옛 것을 익히고 나아가 새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주 공립미술관들은 제주미술 정립 전시를 통해 제주 미술의 특징 아닌 특징으로 꼽히는 다양한 양식들의 혼재 현상을 정리하고 제주미술의 흐름을 재정립 하여 앞으로 나아가 갈 제주미술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주의 역사를 테마로 설정한 전시

제주의 4월 3일은 제주 전체가 슬픔을 간직한 날이다.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월3일 무장봉기로 촉발되어 7년 7개월 동안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약 제주도민의 9분의 1인 2만5000~3000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60년이 지난 제주의 4.3사건은 제주인에게 있어서 광주의 5.18 민중항쟁과 같이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기획되는 5.18 민중항쟁을 중심테마로 많은 전시를 기획하여 직역이미지 및 미술관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듯이 제주 공립미술관들 또한 4.3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여 지역이미지 및 지역문화의 이미지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65) 제주일보 2007년 6월 6일 기사 발췌

제주도는 4.3사건 당시 희생된 제주 도민들을 추모하고 화해와 상생의 전신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도록 ‘4.3특별법 제정’, ‘제주4.3평화 공원’ 설립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4.3관련 지자체의 사업과 맞물려 4.3사건의 의미와 그 속에 내포하는 화해와 평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한 기획전시는 4.3사건을 격지 않은 젊은 세대와 관광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4.3사건을 중심테마로 기획되는 다양한 전시를 통해 제주도가 단순히 관광도시의 아름다운 이미지의 반면에 한국현대사의 모진 바람을 감내하고 이를 평화로 승화시킨 공간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22> 4.3사건 주제의 작품 사례①
젓먹이, 강요배 작, 2007



<그림23> 4.3사건 주제의 작품 사례②
시원, 강요배 작, 1989년



2. 제주문화를 이끌 작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시기획

2010년 현재 각 지역의 공립미술관은 신진작가 발굴 및 중진작가에 대한 체계적인 전시 지원 시스템 부재로 인해 창작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전시 이후 작가의 활동에 있어서 국제적 프로모션과 활동기반 제공이 많이 부족하다. 또한 시진작가 양성을 위한 기획전 보다는 이미 검증된 시장성을 보유한 블루칩 작가의 개인전 또는 그룹전으로 치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신진작가들의 입지확보가 미약한 상황이다. 많은 변화를 빠른 속도로 겪고 있는 21세기, 한국미술의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한국미술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작가의 발굴 및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다. 최근 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되면 지방미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지역의 작가 존재 여부에 대하여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미술계가 이미 지나치게 중앙집권화한 현상화에서 지역작가는 중앙화단에 입문해야만 동시대미술의 흐름을 탈 수 있다는 탈 지방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⁶⁶⁾ 이러한 현상은 미술문화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서울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편으로 지역의 공립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신진작가 육성을 위한 공모형태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형태의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의 《SeMA 전》, 광주시립미술관의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 전》, 부산시립미술관의 《젊은시각 새로운 시선 전》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산시립미술관은 젊은 작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시뿐만 아니라 중견작가의 활동을 되짚어보는 《부산의 발견 전》을 2년마다 연례전 형태로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공립미술관들은 아직 신진작가 발굴 및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진, 원로작가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제주문화예술을 이끌 신진작가의 발굴과 중견, 원로작가의 지원을 위한 각각의 전시 및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1) 제주의 젊은 작가 발굴을 위한 전시

지역미술 발전을 위한 젊은 작가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는 작가의 선정에 앞서 나이, 작품 활동 기간, 전시회 횟수, 작품의 성향 등 작가선정의 기준을 타 전시 보다는 보다 냉철하고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젊은 작가’라는 용어 자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작가 선정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장 보편적인 기준인 나이를 기준을 1차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2차 선정기준은 작품 활동기간, 3차 선정기준을 전시회 횟수, 4차 선정기준을 작품 활동의 성향 등으로 설정하여 선정기준에 정확히 상응하는 작가를 선정한다면 작가 선정의 공정성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1차 선정기준인 나이의 기준은 미술관련 또는 일반 교육의 정규과정을 이수 기간을 중심으로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겠다. 40세의 나이가 일반적인 교육과정 이수 나이를 중심으로 하기에는 고령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66) 홍혜정, 지역시립미술관의 전시기획 전략: 대구시립미술관건립계획에 있어 전시기획을위한 제언, 경희대학교, P65

작가가 아닌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2차 선정기준인 작품 활동 기간은 일반적인 미술관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5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3차 선정기준인 전시회횟수는 개인전 1회 이상, 단체전 1회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선정기준에 전시회 횟수를 포함한 이유는 작가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4차 선정기준인 작품 활동 성향은 1차, 2차, 3차 선정기준에 준하는 작가의 작품을 공모전 형태로 미술관 내무 심사의원과 외부 심사의원의 심사에 의해 최종 4명 내외의 작가가 선정 되도록 한다. 작가선정을 1차 ~ 4차까지 심사의 기준을 둔 이유는 작가 선정에 있어서 신중함을 요하기 위함이다.

미술관은 선정된 작가와 미술관의 큐레이터와 1:1 파트너가 되어 다양하고 신선한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젊은 작가 발굴을 위한 기획전시는 프로젝트 형식의 전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시는 젊은 작가들에게는 창작열을 자극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미술관의 큐레이터들 또한 서로를 자극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제주의 중견, 원로작가 지원을 위한 전시 및 활동

지역미술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 및 원로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은 지역미술의 정립과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작가들이 전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지 못하여 제주지역의 중견 및 원로작가들이 전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몇의 스타작가 외에는 작가의 생명력이 길지 않은 국내 미술계에서 중앙화단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작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재 지역사회의 중견작가 및 원로작가들이 처한 공통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공립미술관은 지역작가들이 다양한 전시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제주 공립미술관들이 진행하는 중견, 원로작가들을 위한 전시활동으로는 기본적으로 초대전 형태의 기획전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초대전 형태의 전시는 다양한 작가의 참여 보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 또는 작가의 인지도에 따라 치중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초대전 형태의 전시 외에 기획의도에 따라 선정된 테마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형태의 전시를 진행하여 작가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전시개최 외에 제주지역 및

제주지역 연고 작가관리를 위한 독립된 사업을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작가 개발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작가의 포트폴리오 소개와 토론을 위한 미술관련 전문 인사 초청행사의 정례화와 작가소개 CD-ROM, 동영상 등과 같은 작가별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전국의 미술관 및 문화기관에 배포하여 지속적인 관리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작가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 및 자료 수집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 특성화된 전시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의 신진작가들을 발굴하는 형식의 공모전이나 중견, 원로 작가를 위한 기획초대전을 개최하는 장을 마련함은 물론이고 지역작가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전국의 작가들로 확대하여 지역미술 자체의 경쟁력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판은 지역작가, 서울작가, 부산작가가 아닌 대한민국의 작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미술의 경쟁력이 되고 지역미술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타 지역과 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각 지역마다 미술관이 건립되고 특성화 활동들이 자리잡아가면서 각 지역 미술관의 교류가 요구된다. 타 지역과의 교류전시는 지역미술의 전개와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측면으로 조명함으로써 우리 미술문화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시는 각 미술관의 독자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행사인 동시에 각 지역의 문화가 드러나는 첨단의 현장이기도 하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공립미술관들은 서로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공립미술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기획전시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나라의 문화예술을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⁶⁷⁾ 그리고 예술 속에 펼쳐져 있는 삶의 내용과 형식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된다. 예술간 문화교류란, 또 예술교류의 활성화란 다름 아닌 한 나라를 이해하고 가장 집약되고 정제된 텍스트의 주고받음이고, 그를 통해 서로의 상태에 대한 이해든, 예술적 교감을 통한 상호발전의 계기를 맞든 그 작용은 매우 자연스러운 교류과정이며, 교류의 효과일 수 있다.⁶⁸⁾ 지식기반 사회에 도래하면서 국제금융, 자본, 물류의 교류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인적교

67) 한미애, 한국과 일본 국.공립 미술관의 기획전시 비교연구, 동덕여자대학교, 2005, P108

68)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동북아시아 예술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2004, P35

류의 중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하는 배경에는 인종,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다양성과 상호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처음부터 본래성을 갖고 그 지역에 존재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와 문화 간의 끊임없는 교류와 소통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어 고유성을 띠게 되는 부분을 인식한다면 앞으로 더욱 문화예술을 통한 인적교류의 활성화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타 지역 간의 교류전시 및 연구 교류를 통해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독자성을 확립하여 자생력을 키워 지역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풍토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별 미술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교류는 최근 계속적으로 미술관이 설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지역의 문화예술(미술문화)을 서로 공유 하는 장을 마련하고, 최근 지역사회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 되어있던 문화적 관심이 지방예술, 문화 활동의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문화집중화를 분산 시킬 수 있는 개기가 될 것이다.

4. 세계화시대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국제전시 기획

2010년 현재 우리는 전지구화 세계에 살고 있다. 마셜 맥루한(Mashall McLuhan)이 1960년대 ‘지구촌’이라는 말로 미래세계의 성격을 요약한 이래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지구촌 내에서 시공간의 개념은 갈수록 압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문화 . 예술 또한 활발히 교류되고 발전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은 현대적이고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미디어 시티 서울을 2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광주는 국제적인 미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아시아현대미술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부산은 해양도시의 지역성을 앞으로 내세운 부산비엔날레를 통해 도시의 특징과 현대미술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의 시립미술관으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따라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고, 이어 2006년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행정적 변화를 겪었다. 제주는 위치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둘러싸여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예술 행사 및 국제대형전시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의

흐름에 앞서나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특징에 맞추어 국제대형전시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공립미술관들의 기획전시 중 대형국제전시 기획의 목적은 문화의 중앙집권화를 지양하고 지역화를 도모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이미지 구축과 문화경쟁력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섬으로 타 지역과 독립된 공간이다. 이러한 환경적 특징을 적극 활용하고, 제주도의 공립미술관 뿐만 아니라 제주 관광산업 중 하나인 올레 길과 섬 전체의 야외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미술관의 전시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국제전시의 프로그램은 전시행사, 축제행사, 학술행사 등 세 가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전시행사는 본전시, 특별전시, 기념전시로 구성하고, 축제행사는 의식행사(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공연행사, 관람객 참여행사 등으로 구성한다. 특히 관람객 참여행사는 관람객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람객 유치효과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학술행사는 미술포럼, 작가와의 만남, 현대미술 강좌, 관람객을 위한 워크숍 등으로 구성하여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다양한 대형국제전시가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단지 트렌드화되어 비슷비슷한 미술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국제전시를 기획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다양한 사전 분석을 거쳐야 한다. 대형국제전시는 보다 실험적이며 적극적인 문화교류의 장이 되어야하며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 론

1995년 지방자치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국가문화정책 및 지자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공립미술관의 설립이 늘어나고 2010년 현재 그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미술관이 건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공립미술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함이나 지역구의 구색 맞추기의 방편으로 건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공립지역미술관들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시를 하고 지역작가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 형식의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의 구성 및 진행방향이 비슷하여 정작 미술관의 특징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지역 공립미술관은 지역의 특징에 기초하여 설립목적은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미술관마다 분명한 목적과 테마를 가지고 전시활동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각 지역 공립미술관의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설립목표의 설정은 미술관을 찾은 모든 관람객들이 미술관에서 모든 활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미술관의 정확하고 차별화된 설립목적의 설정은 미술관의 뚜렷한 특징을 정립시키고 도시의 문화 정체성과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대한민국의 지역별 대표 공립미술관의 전시활동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제주지역의 특징을 테마로 선정한 전시의 기획이다. 제주의 사회, 문화, 역사의 계승과 재해석, 현재 제주의 이슈를 예술과 접목시킨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제주지역 공립미술관은 지역성을 적극 반영한 전시를 통해 미술관 이미지를 구축하고 제주의 문화향유 및 전시활동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제주지역의 문화를 이끌 차세대 작가 발굴 프로젝트 형식의 전시를 개최하여 제주지역의 많은 작가들이 지역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고 발전 할 수 있도록 활발한 작품 활동의 발판을 제공한다. 또한 작가의 작품 활동과 작품을 포트폴리오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주지역미술의 발전과 작가지원 방안의 다양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섬이라는 가장 큰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과거부터 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독자적인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에는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약점 및 제주지역 문화의 특징을 타 지역에 알리고 타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지역의 미술관과의 교류전시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은 지역 문화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넷째, 세계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대형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제주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선정되고 그 후, 2006년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행정적이 측면에서 타 지역과 확실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제주 화산섬, 용암동굴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천혜자연을 간직한 섬이라는 명성까지 얻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제주에는 6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유치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아직 이러한 변화에 부흥하기 위한 국제적인 미술행사가 전무한 상태이다. 국제적인 미술행사의 유치를 위한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많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국제적인 미술행사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좋은 조건과 특징일 적극 활용하여 섬 전체를 미술관화 하는 프로젝트 및 관광, 휴양, 예술이 겸비된 대형국제전시 기획이 되도록 심도 있는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전시활동 방향에 대한 제언은 제주지역 공립미술관 기획전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공립미술관이 다양한 전시활동을 통해 제주지역의 미술의 발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가나아트편집부, 2003, 「알고 나면 미술박사」, 도서출판가나아트
- 국립현대미술관(편), 2007, 「미술관 진흥비전 2020」
- 국립현대미술관(편), 2007, 「2006 미술관 백서」
- 김규원, 라도삼, 이현식, 2001, 「대도시에서의 지역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김형숙, 2001, 「미술, 전시, 미술관」, 예경
- 김형숙, 2001, 「미술관과 소통」, 예경
- 김희량, 2010, 「빛 2010을 개최하며 - 빛 전의 약속, 그 역사와 의미」, 빛 2010 하정웅청년작가 10주년 기념도록
- 김달진, 김찬동, 김철효, 김홍희, 나선화, 박규형, 박정웅, 박삼청, 박찬웅, 박혜경, 이동국, 2006, 「미술전시 기획자들의 12가지 이야기」, 한길아트
- 노시훈, 2010, 「웰컴투 박물관」, 컬처북스, 2010
- 니콜라스 세로타 지음, 하계훈 옮김, 2000, 「경험인가 해석인가 큐레이터의 딜레마」, 조형교육
- 데이비드 딘 지음, 전승보 옮김, 1998, 「미술관전시 전시이론에서 실천까지」, 학고재
- 마이클 벨처 지음, 신자은 . 박윤옥 옮김, 2006, 「박물관 전시의 기획과 디자인」, 예경
- 문화관광부(편), 2000, 「문화비전 2000,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
- 문화관광부(편), 2001, 「문화정책백서 2001」
- 문화관광부(편), 200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박우찬, 1999, 「전시기획에서 마케팅까지 : 전시는 이렇게 만든다.」, 재원
- 서울시립미술관(편), 2008, 「서울시립미술관 연보 2005~2007」
- 서울특별시(편), 1996, 「서울 육백년 사」
- 심삼용, 2000, 「그림없는 미술관」, 이룸

- 안소현, 1993, 「전시기획 방법론」, 현대미술관연구
- 윤난지, 2002, 「전시의 담론」, 눈빛
- 이난영, 1973, 「박물관학 입문」, 삼화출판사
- 이보아, 2006,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 이용길, 2006, 「부산미술사료」,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 연구센터
- 이흥재, 2001, 「미술관지역 문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학 강좌 집」
- 제단법인 광주비엔날레(편), 1995, 「제1회 광주비엔날레 결과보고서」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현대미술관 건립기본 계획 연구 중간보고회 연구집」
- 지식경제부(편), 2007, 「국가균형 발전 계획에 관한 연차 보고서」
- 최열, 2006, 「한국 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 하계훈, 2007, 「전시기획의 이론과 실제」, 「국립현대미술관 2007년 하계 초등교사 미술연수 자료집」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편), 2004, 「동북아시아 예술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편), 1990,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문화 행정 방향에 관한 연구」
- Neil Kotler · Philip kotler, 한종훈 · 이혜진 옮김, 2005, 「박물관 미술관학 - 뮤지엄 경영과 전략」, 박영사

[학위논문]

- 곽윤정, 1997, 「현대공공미술관의 사회적 기능 :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 권수진, 2009, 「대전시립미술관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 김은영, 2009, 「국립미술관 기획전시에 따라 전시공간 연출분석」,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 류천학, 1999, 「전시의 주제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 박선주, 2005, 「지역사회에서 미술관 역할 연구 : 영은미술관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 박우찬, 1995, 「공공미술관의 효율적 전시활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 박찬정, 2009, 「2000년대 한국현대미술 전시기획의 특징에 관한 고찰 :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준문화예술대학교
- 손수현, 1996, 「한국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바람직한 문화예술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 문화예술 재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 안미진, 2010, 「국내 국.공립미술관 전시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 양미경, 2006,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 양성희, 2001, 「부산비엔날레의 현황과 발전 방안」,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정미, 2007, 「지역 박물관의 전시해설기법 연구 :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 윤민희, 2009,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운영방안 연구 : 제주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 윤희정, 2007, 「우리나라 박물관 발달에 따른 전시연출 변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 이권호, 2009, 「광주예술의 거리내(가칭) 현대미술관 기본계획 설계 : 미술관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 이소진, 2008, 「현대미술관의 공간 구성 특징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이영주, 2007, 「미술관의 대중접근성 강화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정은영, 2004, 「공립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 전시활동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 주연실, 2008, 「광주비엔날레의 설립과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차혜림, 2004, 「한국 국립미술관의 역사와 현황에 관한 연구 : 직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태만, 1990, 「미술관 설립 및 활동의 역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 한미애, 2005, 「한국과 일본의 국.공립 미술관의 기획전시 비교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주원, 2008, 「국내 국.공립 미술관 소장품 수집정책 연구」, 국민대학교

- 홍혜정, 2005, 「지역시립미술관의 전시기획 전략 : 대구시립미술관건립계획에 있어서 전시기획을 위한 제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황시권, 2008, 「지역의 공공 문화인프라 활성화방안 연구 :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보고서]

- 국립현대미술관 (편), 「문화선진국을 위한 투자, 미술관 정책」, 2005
- 제주도 (편),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2004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편), 「동북아시아 예술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2004

[정기간행물]

- 강수미, 2005, 「청계천, 정치문화예술의 지평을 거닐다.」, 「월간미술」, 2005 . 11월호
- 김준기, 2009, 「지자체 시대와 상호지역주의 예술」, 「월간미술」, 2009 . 6월호
- 부산시립미술관(편), 2006, 「2006년 미술관 소식지
- 장동광, 2009, 「공립미술관의 현실과 미래적 지평」, 「월간미술」, 2009 . 6월호
- , 2001, 「문화대중주의 속 미술관의 변화」, 「월간미술」, 2001 . 1월호
- 이영철, 2006, 「전시기획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월간미술」, 2006 . 5월호
- 하계훈, 2008, 「아시아 4대 비엔날레의 한축을 위한 방향성」, 「월간미술」, 2008 . 10월호

[인터넷 사이트]

- 광주시립미술관 <http://www.artmuse.gwangju.go.kr/>
- 경기도미술관 <http://www.gma.or.kr/>
- 경남도립미술관 <http://www.gam.go.kr/>
- 국립현대미술관 <http://www.moca.go.kr/>
- 대전시립미술관 <http://dmma.metro.daejeon.kr/>
- 부산시립미술관 <http://art.busan.go.kr/>
- 서귀포 시립 기당미술관 [http://gidang.seogwipo .go.kr/](http://gidang.seogwipo.go.kr/)
- 서귀포 시립 이중섭미술관 <http://jslee.seogwipo.go.kr/>
- 서울시립미술관 <http://seoulmoa.seoul.go.kr/>
- 전북도립미술관 <http://www.jbartmuse.go.kr/>
- 제주도립미술관 <http://jmoa.jeju.go.kr/>
- 제주현대미술관 <http://www.jejumuseum.go.kr/>

Abstract

Strategy for Invigorating the Exhibition Program of Public Art Museum in Jeju Area – Focused on the Project Exhibition–

Yoo, Min Young

Department of Museology

Graduate School of Art and Culture, Myongji University

Advisor: Jeon, Tae il

Korea government has been pushed the public museum project since 1999. As of 2006, the program has financed for 13 museums investing ₩ 30,755 million, and 7 more museums (continuing project: 3, new project:4) were going to be financed in 2007 with ₩ 3,758 million. Also, it is planned to expand governmental investment for the museum construction as well as developing diversified supporting plan for where the infrastructure of the fine arts is insufficient to expand the base population who enjoys art and promote citizen's cultural right through the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of the art. With such change in direction of the governmental policy, four public museums, including the Hyundai Art Museum opened in 2007 and the Jeju Museum of Art opened in 2009, are operated in Jeju area.

In this study on the 'strategy for invigorating the exhibition program of public art museum in Jeju area', we want to examine the existing problems of the public art museums in Jeju area and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project exhibition as a solution.

Selecting representative public art museum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which is larger than the megalopolis (gwang-yeok city) or the province (do), we chose

four common type of the project exhibitions and analyz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to suggest the strategy for the project exhibition in Jeju area's public art museu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xcept the Seoul Museum of Art and the Seogwipo Gidang Art Museum, most of the surveyed museums were established during 1992 to 2009, and share the similar purpose of establishment; promoting the residents' appreciation of the art, providing the comprehensive cultural space for the art education, establishing the regional art,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Korean art. The project exhibitions of each art museum were held 15 times per year on average. And with the characteristic as the local public art museum, such exhibitions were focused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local artists.

When separately considering the exhibitions of the selected art museum, on the surface, it seems that the exhibitions are unique to each art museum. However, when they are categorized into several type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were not found very much. Based o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found during the survey, we suggested the 4 types of project exhibition for the public art museums of the Jeju area.

First, by planning the exhibitions incorporating the succession and reinterpretation of Jeju's societal , cultural and historical issues with the art, we recommend to promote the art museum's image while acting as a landmark for culture and exhibition of the Jeju area.

Second, we suggest to host the invitation and project exhibit for discovery and support of the next generation artists as well as the support of the artists of medium standing and/or doyen artists. With the works exhibited at the exhibition, the museums could establish their own database, which woul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Jeju;s art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support for the artists.

Third, establishing the network with other local public art museums through the exchange exhibitions would be helpful in sharing the culture with other

geographical regions.

Forth, hosting of the international mega exhibit might also promote the strengthening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Jeju.

Our recommend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exhibition of Jeju area's public art museum have meaning for providing the basic information to activate the Jeju's public art museum's exhibits. Further, we hope the public art museums of the Jeju area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art culture as well as the Korean art.